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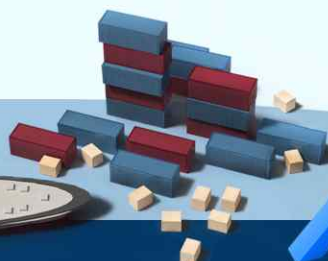


한국경제와 해외원조

류상윤 교수



韓美經援協定에 調印
經濟自立의 達成期約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국경제와 해외원조

류상운 교수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30

4 讲义

57

5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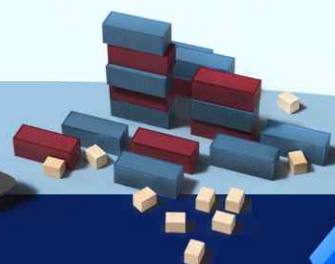
80

6 토론

84

7 자료

86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한국경제와 해외원조>는 지난 약 80년간의 한국경제를 해외원조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는 교과목이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한국경제에 제공된 다양한 해외원조의 특징과 그 영향, 그리고 한국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02

학습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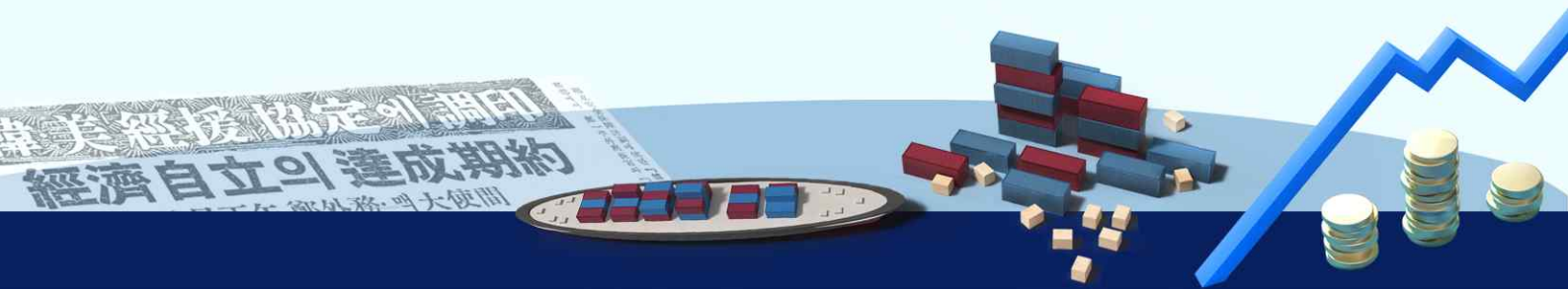
- (1) 한국에 대한 원조의 전개 과정을 해외원조의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 (2) 한국에 제공된 원조의 규모와 구성을 이해한다.
- (3) 한국에 제공된 해외원조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정책 조정과 자금 배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할 수 있다.
- (4) 한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해간 과정을 이해한다.

03

기대효과

해외원조는 196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안정과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강좌는 한국현대경제사를 전공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에게 초기 경제성장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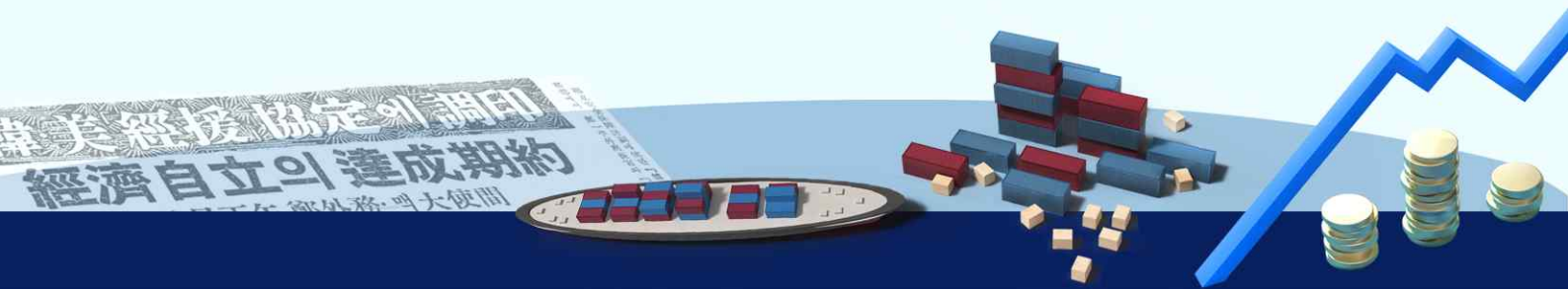
한국은 막대한 원조를 받던 나라 중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대표적인 사례이며 매우 드문 사례이다. 원조라는 국제개발협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효과성 등에서 많은 논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조 역사를 학습하는 것은 국제개발협력의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04

주차별 구성

1주차	원조라는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2주차	한국경제와 ODA
3주차	미국의 원조와 합동경제위원회
4주차	UNKRA 원조와 네이산 보고서
5주차	1950년대 한국의 환율 정책
6주차	1950년대 비프로젝트 원조의 배분
7주차	1950년대 프로젝트 원조의 배분
8주차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
9주차	ODA 차관의 도입
10주차	기술원조의 도입
11주차	ODA 공여국으로서의 한국
12주차	해외원조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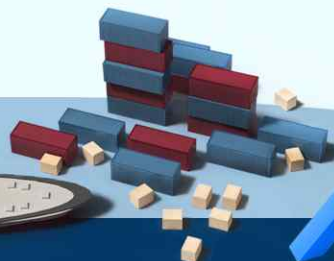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韓美經援協定에調印
經濟自立의達成期約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0
 주차

기술원조의 도입

10-1

기술원조의 개념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해외원조> 강좌를 맡은 류상운입니다. 한국경제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원조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는 기술원조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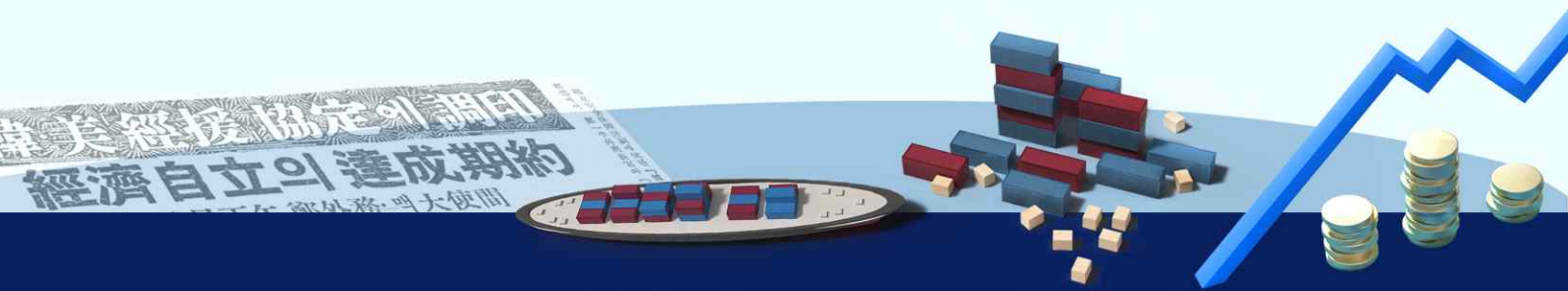
경제학 원론 수준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화면의 식은 생산 함수입니다. 어떤 경제의 생산 수준 즉 GDP는 기술 수준, 물적 자본, 인적 자본, 노동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노동을 인구로 간주하고 생산성 또는 1인당 GDP의 식으로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1인당 GDP는 기술 수준, 1인당 물적 자본, 1인당 인적 자본의 함수가 됩니다.

근대 경제성장의 핵심은 1인당 GDP의 추세적인 증가입니다. 화면의 식에 따르면 1인당 GDP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기술 수준의 향상, 1인당 물적 자본의 증가, 1인당 인적 자본의 증가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해온 프로젝트 원조나 양허성 차관 등은 대개 1인당 물적 자본을 늘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면, 이번 강의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기술원조는 1인당 인적 자본을 늘리거나 경제 전체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원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증여나 차관을 통한 프로젝트 안에 물적 지원과 함께 기술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렇게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로 들어가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적 자본을 늘리거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원조입니다.

이 둘을 구별하여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4년 10월 작성된 세계은행의 '기술 원조' 매뉴얼은 각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technical cooperation과 technical assistance를 구분 없이 사용하지만, OECD는 둘을 구별해서 사용한다. OECD가 사용하는 TC는 수혜자의 인적 자본 스톡이나 제도적 역량을 늘리는 것에 일차 목적을 둔 독립적 활동을 가리키며, TA는 투자 프로젝트 실행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노동이나 전문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즉 당시 OECD는 독립적인 기술원조를 technical cooperation, 물적인 프로젝트의 구성요소로써 제공되는 기술 지원을 technical assistance라고 구별해 불렀던 것입니다.

현재는 OECD도 이런 식의 구분을 강조하지 않으며 TA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TC라는 용어는 독립적인 기술원조를 가리킬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이라고 하여 FTC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OECD의 보고서와 통계를 활용해 기술원조의 국제적 추이를 검토할 것이므로 독립적으로 제공된 기술원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OECD의 용어를 한국어로 그대로 옮긴다면 기술원조가 아니라 기술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수업에서는 한국어로 좀 더 익숙한 기술원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OECD DAC의 2005년 개발협력보고서는 기술원조에 한 개의 장을 할애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해당 장의 첫 페이지입니다. 박스의 내용을 보면 기술원조가 원조 프로그램에서 늘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그에 대한 비판도 많기 때문에 논란을 검토해 보고자 독립된 챕터를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술원조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학생이나 연수생 자격을 주어 학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문가, 교사, 자원활동가들을 원조 공여국으로부터 직접 공급하거나, 현지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 채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개발도상국들에서 대두되는 문제들, 예를 들어 열대 질병에 관해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수혜국 입장에서 보면 각각 파견, 초청, 연구용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파견, 초청, 용역이라는 용어는 나중에 볼 한국 정부 통계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보고서는 기술원조 금액이 수혜국 정부의 교육 관련 지출보다 많은 국가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당시 캄보디아, 잠비아, 통가 등입니다.

기술원조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장학제도가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원조를 먼저 시작한 것은 정부보다 1913년 설립된 록펠러 재단이나 1936년 설립된 포드 재단 같은 민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기술원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이후 해외원조를 주도한 미국에서는 1949년 1월 트루먼 대통령이 재선 취임 연설에서 저개발지역에 대한 기술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취임 연설의 네 번째 항목이었다고 하여 이를 '포인트 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기술 협조처', 즉 TCA가 ECA와 병립하는 기관으로서 설립되었습니다. TCA는 이후 FOA로 통합되었고, 기술원조는 미국 해외원조의 한 부분으로서 실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UN도 기술원조에 나섰습니다.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기술과 지식의 전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UN 회원국들은 1949년 UN 자금을 활용한 기술원조의 실시를 결의합니다. 이에 따라 기술원조 확장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기술원조기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기구는 1965년 UNDP로 통합되었습니다.

미국의 '포인트 포' 사업과 UN의 기술원조 확장프로그램으로 시작된 기술원조는 이후 각국, 각 국제기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구 식민지 국가들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였고, 독일과 일본도 해외원조를 실시하면서 기술원조를 포함하였습니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예를 들어 IMF가 개발도상국의 중앙은행 기능, 조세제도, 통계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을 단기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조가 확대됨에 따라 비판 의견도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보통의 해외원조가 유형의 것인데 비해 기술원조는 무형의 것이다 보니, 그 효과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과 지식은 쉽게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여러 구체적인 비판 중에 여기서는 2005년 개발협력보고서에 실린 두 가지 논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두뇌 유출입니다. 장학생이나 실습생 자격을 주어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기술원조의 세 가지 구성요소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습의 장소는 주로 해당 원조의 공여국입니다.

공여자가 기대하는 바는 원조를 받아 기술과 지식을 늘린 수혜자가 출신지로 돌아가 현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혜자에게 공여국의 환경은 출신지에 비해 너무나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혜국의 물질 자원을 어떻게든 늘리는 다른 원조에 비해, 기술원조는 수혜자가 출신지로 돌아가지 않고 공여국에 남는다면 사실상 원조로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는 전문가 파견의 비용 문제입니다. 이 비용은 수혜국과 공여국 모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의뢰를 받아 캐나다 전 수상 레스터 피어슨이 위원장이 되어 조사한 이른바 피어슨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파견에 공여국이 100만㎞ 자금을 대면 수혜국 역시 50~140만㎞의 지출을 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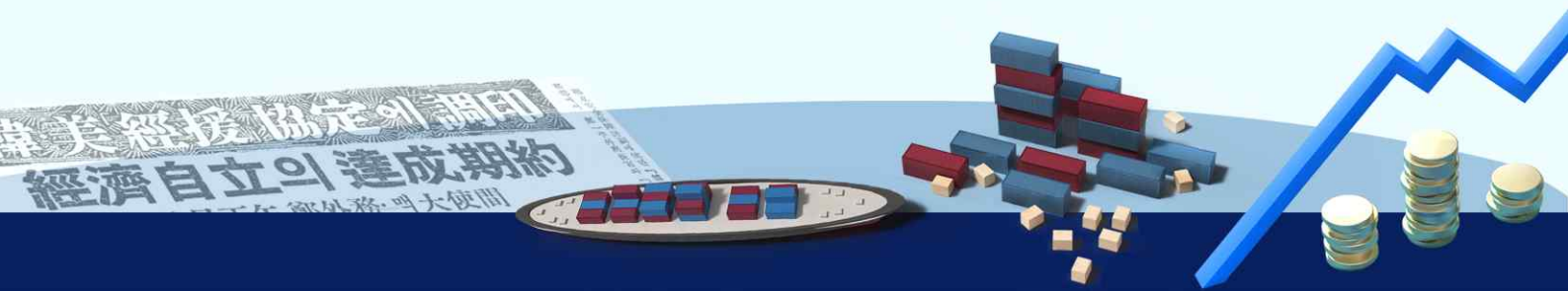
수혜국의 지출에는 전문가에 대한 급여 일부, 현지 대응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및 숙박료, 교통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는 전문가에 대한 급여를 수혜국에서도 일부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용이 낮아졌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여국 입장에서도 전문가 파견의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문제는 전문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즉 급여 외에 나머지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파견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05년 개발협력보고서에 따르면 자메이카에 파견된 전문가의 경우, 전체 비용 중 급여의 비율은 30%도 되지 않았고 자녀 수당과 학비, 거주 임대료가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현지나 인근 국가에서 채용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공여국의 기준에 맞는 인재를 찾기 어려워 채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원조의 개념과 몇 가지 논점을 소개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OECD 통계를 통해 기술원조의 추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0-2 기술원조의 국제적 추이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기술원조의 개념과 몇 가지 논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OECD 통계를 통해 기술원조의 국제적 추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ODA는 증여와 양허성 차관으로 구성되며, 증여에 조차관액을 더하고 원리금 상환액을 뺀 값이 순 ODA입니다. 그런데 OECD 통계는 그러한 구별과는 별도로 기술원조 제공액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OECD의 ODA 통계 중 DAC1입니다. 항목을 제가 몇 개만 추출했는데, I.A. 양자간 ODA 중 별도로 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FTC가 집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자간 ODA의 구성 요소 중에도 기술원조에 해당하는 4번 전문가와 다른 기술원조, 5번 장학금과 공여국에서의 학생 비용이 있지만, 이 둘의 합계보다 FTC의 금액이 큼니다. 다른 요소에도 FTC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DAC1의 경우 FTC가 양자간 ODA에 대해서만 집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자간 기술원조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다자기구를 통한 기술원조는 OECD ODA 통계 중 DAC2a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AC2a는 자금의 원천이 아니라 자금의 집행 단계에서 집계한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DAC1이 FTC라는 용어를 쓰는 데 비해 DAC2a는 그냥 TC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DAC 회원국의 기술원조액을 비교해보면 양쪽이 거의 똑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AC2a의 경우 다자기구의 기술원조 제공액은 더 잘 알려주지만, DAC 회원국의 양자간 기술원조 제공액은 1966년부터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65년까지는 수혜국별 통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 일 것입니다. 따라서 DAC2a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DAC 국가들의 1964년 이전 양자간 기술원조 제공액은 DAC1과 연결하여 기술원조의 추이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가 집계한 1960년 기술원조 총액은 2020년 달러로 환산했을 때 53억 달러였습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271억 달러로 피크에 달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액이 많이 줄었지만, 2020년에도 202억 달러가 개발도상국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공여자별로 보면 1990년대 초까지 DAC 회원국 양자 원조의 비율은 70%~80%, 다자기구의 비율은 20~3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양자 원조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에 95%에 이르기에도 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자기구의 비율이 다시 늘어 2018년에는 15%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ODA 중 다자기구의 비율이 1990년대 중반 이후 20%대 후반을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기술원조는 좀 더 양자 간 원조가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여국별 비율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주요 공여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에는 프랑스 16%, 독일 14%, 미국 13%로 이들 세 국가의 합이 거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 해 일본의 비율은 4%에 불과했지만 이후 점차 늘어나 2010년에는 독일 23%, 프랑스 13%, 일본 11%, 미국 7%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 정도로 매우 낮아진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비 DAC 회원국의 기술원조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 아직은 모두 합쳐 2% 정도에 불과합니다.

ODA에서 차지하는 기술원조의 비율을 보면 1960년 후반부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대체로 20%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 비율이 크게 하락하였고, 이후에도 ODA는 증가하는 것에 비해 기술원조는 정체하면서 비율이 조금씩 낮아져 왔습니다. 2020년에는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술원조 수혜국의 대륙별 분포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개발도상국들이 몰려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많은 기술원조가 제공되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아프리카의 비율이 40% 내외로 가장 높았고 아시아의 비율은 20%~30%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ODA 총액에서 1970년대 전반까지 아시아의 비율이 40%대, 아프리카의 비율이 20%대로 차이가 났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ODA가 초기에 아시아 지역을 가장 주요한 대상으로 하였다면 기술원조는 아프리카 지역을 가장 주요한 대상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ODA 총액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비율이 유사해진 것은 1970년대 말부터입니다. 반면에 기술원조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야 두 지역의 비율이 비슷해졌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가장 많은 기술원조가 제공되는 상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졌던 것입니다.

화면의 그래프에서 기타는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원조나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원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원조가 2000년대부터 늘고 있는데 이것은 ODA 총액에서도 보이는 현상입니다.

끝으로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 지역을 OECD 통계의 분류에 따라 극동, 남·중앙아시아, 중동으로 세분해서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극동 지역이 가장 많은 기술원조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DA 총액에서는 2000년대 들어 극동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비교적 준수한 경제 성과를 거두어 감에 따라 극동의 비율이 점차 줄어 2019년에는 6%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조에서는 극동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으며, 2000년대 이후에도 크게 줄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OECD 통계를 통해 기술원조의 국제적 추이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 제공된 기술원조를 한국 정부와 OECD의 통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0-3 한국의 기술원조 도입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OECD 통계를 통해 기술원조의 국제적 추이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 제공된 기술원조의 추이를 한국 정부와 OECD의 통계를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1951년 UN으로부터 최초의 기술원조를 받은 때부터 기술원조 통계를 별도로 집계해 왔습니다. 이 통계는 1960년대 들어 『과학기술연감』이 발행되면서 공개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1965년 『과학기술연감』입니다. 기술원조의 형태가 초청, 파견, 용역, 물자라는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청은 외국인 기술자, 전문가를 한국으로 불러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고, 파견은 한국인을 교육을 위해 해외로 보내는 것입니다. 용역은 한국경제에 과제로 대두된 사항들에 대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OECD의 2005년 개발협력보고서에서 지적한 기술원조의 세 가지 형태와 대응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자는 기술과 지식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물자, 예를 들어 연구 장비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한국에 제공된 최초의 기술원조는 파견 형태였습니다. 1951년에 한국인 3명이 해외에 파견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9,100달러였습니다. 1953년에는 최초의 외국인 기술자 초청이 이뤄졌는데, 1명을 초청하는 데 6,900달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1956년에는 용역 및 물자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각 350만 달러와 100만 달러의 규모였습니다. 기술원조 총액은 이후 증가하다가 1980년대 이후 감소했습니다.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형태별 구성을 보면 1950년대에는 용역이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FOA, ICA의 기술원조를 다루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60년대에도 용역은 가장 많았지만 31%로 물자 28%, 초청 26%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파견의 비율은 15%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물자가 42%로 가장 많아졌고, 그다음은 파견 26%, 초청 22%였습니다. 용역의 비율은 10%로 크게 줄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파견이 40%로 가장 많아졌고 그다음은 물자 30%, 초청 27%였습니다. 용역은 3%에 불과했습니다.

파견과 초청의 경우 금액이 아닌 인원으로도 통계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면 금액과는 달리 늘 파견 인원이 초청 인원보다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 파견은 1951년 3명에서 시작해 1973년에는 1,054명까지 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매년 900명 내외, 1980년대에는 매년 700명 내외의 인원이 파견되었습니다.

외국인 초청은 1953년 1명에서 시작해 1960년대 이후는 1990년대 초까지 매년 200명 내외가 초청되었습니다. 파견 인원과 초청 인원 모두 1990년대 들어서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한국 정부 통계는 기술원조를 8개 부문으로 구분해 집계하고 있습니다. 광공업, 농림수산, 교육, 공공행정, 교통, 보건위생, 사회복지, 기타입니다. 『과학기술연감』에는 1977년까지의 집계치가 실려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보면 1950년대에는 광공업 34%, 공공행정 14%로 광공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1960년대에도 광공업의 비율은 31%로 가장 높았는데, 두 번째는 20%의 농림수산이 차지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10% 미만이었습니다. 1971년부터 1977년까지는 농림수산의 비율이 24%로 가장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23%의 광공업이었고 17%의 교육과 16%의 보건위생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통계는 또한 기술원조를 재원별로 네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바로 AID, UN, 콜롬보 플랜, 기타입니다. AID는 FOA, ICA, AID로 이어지는 미국 해외원조 기구를 가리킵니다.

UN은 UN 또는 그 산하의 UNDP 등 다양한 기구를 말합니다. 콜롬보 플랜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입니다. 기타는 콜롬보 플랜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를 가리키며 주로 서독 또는 독일이었습니다.



콜롬보 플랜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구는 영국 등 영연방 국가들이 남아시아와 동 남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아시아판 마샬플랜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시초였습니다. 콜롬보라는 이름은 1950년 영연방 외무장관들이 스리랑카 콜롬보에 모여 이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룬 데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시적 계획이었지만 이후 국제기구화되었습니다.

콜롬보 플랜의 발족 당시 회원국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의 7개 국이었지만 이후 한국, 일본, 미국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은 1962년 가입을 신청하여 1963년에 정식 가입하였습니다.

콜롬보 플랜을 통한 기술원조는 원조를 원하는 국가가 요청하면 수원국과 공여국이 직접 교섭하는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주로 미국, 일본에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원조는 해외원조 기구를 통한 것 외에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재원별 비율을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보면 1950년대에는 미국 해외원조 기구가 98%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1960년대에도 54%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1973년을 끝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의 비율은 9%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 해외원조 기구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32%의 UN이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주로 서독에 해당하는 기타 재원의 비율이 3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35%의 UN이었습니다. UN의 기술원조는 1980년대에는 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기타 33%, 콜롬보 플랜 23%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통계를 검토했는데, 이제 국제사회의 ODA 기준에 맞춘 OECD 통계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 제공된 기술원조 총액을 OECD 통계와 비교해보겠습니다. OECD 통계에는 1966년부터 1999년까지의 수치가 있습니다.

비교에 앞서 OECD 통계에서 한국이 받은 ODA 중 기술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전반에는 5% 정도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계 평균은 20% 정도였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다른 형태의 원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원조의 비율은 1970년대 후반에 상승하여 1979년에는 25%에 이르렀습니다. 비율 상승의 요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기술원조는 증여 형태의 원조인데 1970년대 후반 들어 그밖의 증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ODA 차관의 경우 도입액 대비 상환액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ODA 중의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 1970년대 말에는 ODA 중에서 상당 부분을 기술원조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통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66년부터 1975년경까지는 한국 정부 통계와 OECD 통계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유사합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 정부 통계에서는 기술원조액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것에 비해 OECD 통계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해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공여국 또는 기구별로 비교해보았습니다. 한국 정부 통계가 재원을 AID, UN, 콜롬보 플랜, 기타의 네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는데 비해 OECD 통계는 개별 공여국별 원조 금액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OECD 통계에서 한국에 기술원조를 제공한 주요 4개 국가 또는 기구는 미국, 독일, 일본, UN입니다. 이들이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언제나 80% 이상이었습니다. 이 중 미국은 한국 정부 통계에서는 AID와 콜롬보 플랜의 일부에 해당하고 일본은 콜롬보 플랜의 나머지 일부, 독일은 기타에 해당합니다.

먼저 양쪽 모두 동일한 범주로 되어 있는 UN을 비교해보면 한국 정부 통계와 OECD 통계가 유사했습니다. 한국 정부 통계의 AID 항목과 OECD 통계의 미국을 비교해도 비교적 유사했는데, 약간의 차이는 해외 원조기구를 통하지 않고 콜롬보 플랜을 통해 미국 정부가 제공한 원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 통계의 기타와 OECD 통계의 독일을 비교하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유사하다가 1970년대 말부터 OECD 통계 수치가 큰 차이로 커졌습니다. 한국 정부 통계의 콜롬보 플랜에는 일본 외에 미국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 값을 OECD 통계의 일본과 비교하면 1970년대 전반까지는 유사하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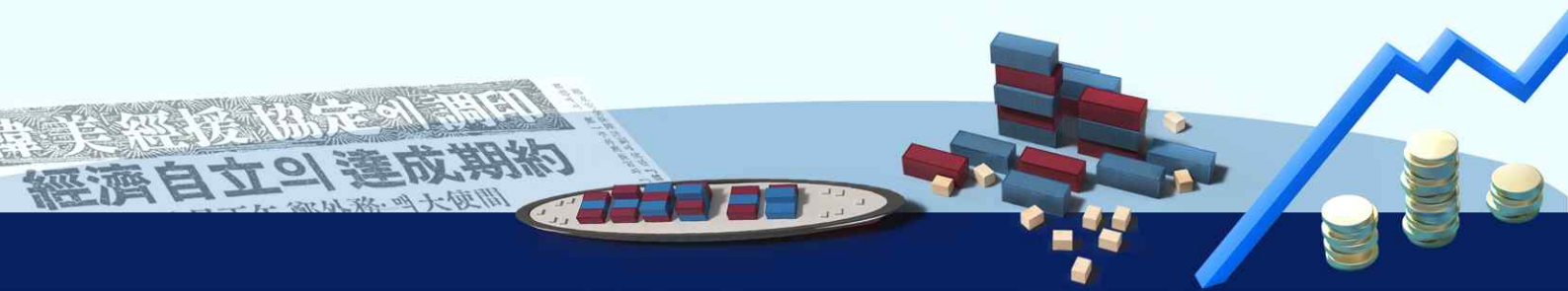


이처럼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 정부가 집계한 기술원조 도입액은 정체 또는 감소하는 데 비해 OECD가 집계한 한국에 제공된 기술원조액은 증가하면서 그 차이가 점차 벌어진 것은 주로 독일과 일본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기술원조라고 인식하지 않은 것을 이 두 국가는 기술원조로 인식했다는 것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어서 어떠한 인식 차이였는지를 해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 통계와 OECD 통계를 종합해보면 한국이 1951년부터 기술원조를 받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 후반에 원조가 본격화되었으며, 원조액이 1960년대에는 대체로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원조가 1970년대에 정체했는지 증가했는지, 1980년대에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는 두 통계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결론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제공된 기술원조의 추이를 한국 정부와 OECD의 통계를 통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 해외원조 기구가 한국에 제공한 기술원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4 미국 해외원조 기구의 기술원조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에 제공된 기술원조의 추이를 한국 정부와 OECD의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해외원조 기구가 한국에 제공한 기술원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해외원조 기구, 즉 FOA/ICA/AID의 기술원조는 1954년 한국인 10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56년에는 350만 달러의 용역이 제공되고 물자 100만 달러가 도입되면서 기술원조액이 530만 달러로 크게 늘었고, 1959년에는 초청, 파견, 용역, 물자 도입 모두 합하여 1,290만 달러가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원조 당국도 기술원조를 집계하였지만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60년 6월 말 현재의 FOA/ICA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원조를 크게 프로젝트 원조, 비프로젝트 원조, '기술협조'로 분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협조'는 1955 회계연도까지는 없었고 1956 회계연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해당 회계연도에 승인된 금액이 그 회계연도 안에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승인액과 도착액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Obligation'은 승인액이고 'Arrivals'는 1960년 6월 말 현재의 도착액, 즉 도입액입니다.

1956 회계연도의 기술협조 승인액은 390만 달러였고 이후 조금씩 늘어나 1960 회계연도에는 84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FOA/ICA 원조 전체 승인액과 비교해보면 1956 회계연도에는 1.3%였는데 1960 회계연도에는 3.8%가 되었습니다. 5개 회계연도 합계로는 1.7%에 해당합니다.

1960년 6월 말 현재 1956 회계연도와 1957 회계연도 기술협조 자금은 90% 이상 도입되었고, 1958 회계연도 자금은 84%, 1959 회계연도 자금은 43%, 1960 회계연도 자금은 26%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입률은 비프로젝트 원조보다는 낮지만, 프로젝트 원조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1960년 6월 말 현재 기술협조 도입액 합계는 1,8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한국 정부 통계보다는 훨씬 작은 금액입니다. 한국 정부 통계에서 AID로 분류된 기술원조 도입액을 1959년까지만 합산해보더라도 3,700만 달러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 원조 당국의 보고서에서 '기술협조'로 분류된 것 말고도 기술원조에 해당하는 것이 더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FOA/ICA의 프로젝트 원조 중에도 기술원조에 해당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1960년 6월 말 현재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에서 1955 회계연도 프로젝트 원조의 전력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한 훈련이 진행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농업 개량 사업이나 광업 분야에서도 해외 파견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원조 중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55 회계연도에는 발전소 복구를 위한 기술 용역이 실시되었고, 1956 회계연도에는 당인리 화력발전소 연료 전환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1956 회계연도에는 기술협조라는 분류가 생겼는데도 일부 기술원조는 프로젝트 원조로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프로젝트 원조 하에서 실시된 가장 이른 기술원조 중에는 1954 회계연도의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대학교의 재건을 위해 교수들에게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서관, 연구소 등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FOA/ICA가 미국 미네소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프로젝트를 맡겼기 때문에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이 채택된 이유는 농대가 있고 조선공학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FOA 처장이었던 해롤드 스타센이 미네소타 주지사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54년 FOA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네소타대 총장이 서울대 총장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프로젝트는 1960년대 초까지 이어졌는데, 1956 회계연도부터는 시설과 장비 지원은 프로젝트 원조, 연수 프로그램은 기술협조로 분류되었습니다.



미네소타대 임학과의 아서 슈나이더 교수가 서울대학교에 상주하는 수석자문관으로 부임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당시 서울대의 12개 단과대학 중 공대, 농대, 의대가 선정되었고, 나중에 행정대학원, 수의대, 간호학과, 보건대학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서울대 교수 218명이 평균 18개월 동안 미네소타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울대가 지원받은 총액은 교환교수 프로그램에 350만 달러, 시설 270만 달러, 장비 270만 달러, 도서비 16만 달러로 합계 9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원조 하에서 실시된 훈련생 파견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소장된 문서 중 하나로 1954년 12월 11일 FOA 워싱턴 본부에서 주한 경제조정관실로 보낸 전문입니다. 전문에는 전력 관련 연수를 받을 10명의 이름과 각 사람별로 6개월 동안 방문할 예정인 기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견 프로젝트는 원래 1954 회계연도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기획되었는데 준비가 늦어져 1955 회계연도로 옮겨진 것입니다. 당시 문서에 따르면 실제 연수는 1955년 1월부터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미국 해외원조 기구가 제공한 기술원조는 원조 당국이 '기술협조'로 분류한 프로젝트 외에도 더 있었습니다. 1960년 6월 말 현재 도착액으로 보면 기술협조가 기술원조의 약 절반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기술협조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6월 말 현재 도착액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모두 1,800만 달러가 도입되었던 '기술협조'는 기타를 제외하고 크게 8가지 범주로 구성되었습니다. 비율이 큰 것부터 말씀드리면, 교육 27.5%, 광공업 15.9%, 농업 및 자연자원 13.5%, 공공행정 10.6%였습니다. 그밖에 지역개발, 사회복지 및 주택이 3.2%, 보건 및 위생이 2.7%, 교통이 1.3%, 노동이 0.6%를 차지했습니다. 프로젝트 원조가 교통과 광공업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가장 비율이 높은 교육은 다시 기술교육, 중등교육, 전문 및 고등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전문 및 고등교육이 380만 달러로 교육 범주 전체 500만 달러 중 75%를 차지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미네소타 프로젝트와 기타 대학의 교원 훈련 프로젝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밖에 기술교육은 21%, 중등교육은 4%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광공업은 기타를 제외하고 4개 영역으로 나뉘었습니다. 광업, 전력·통신, 제조업, 엔지니어링 및 건설 등입니다. 이 중 전력·통신이 100만 달러로 광공업 범주 전체 2,800만 달러 중 37%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29%의 엔지니어링 및 건설, 25%의 제조업이었습니다. 광업은 3%에 불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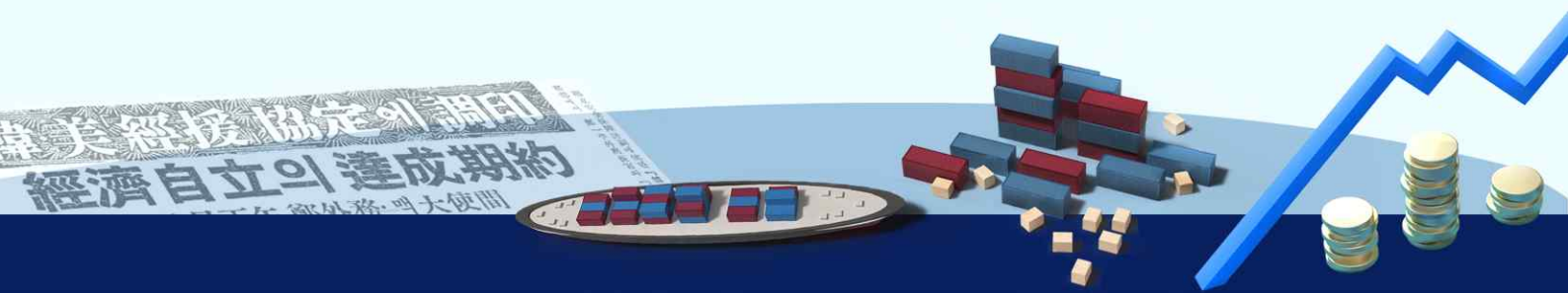
지금까지 기술원조 중 미국 해외원조 기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1950년대 후반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연감』의 통계와 서술에 기초해 한국에 제공된 AID 기술원조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D 기술원조는 1954년에 시작되어 1978년에 종료될 때까지 25년 동안 단순 합계로 1억 2,600만 달러가 제공되었습니다. 형태별로 보면 용역이 39%로 가장 많았고, 초청 32%, 물자 18%, 파견 11%의 순서였습니다.

용역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기술 자문 회사들과 용역 계약을 맺고 특정 분야의 자문을 받도록 AID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AID의 용역 원조는 주로 1950년대에 제공되었고 그 후로는 크게 줄었는데, 1967년에는 예외적으로 490만 달러에 달하는 많은 금액이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또는 KIST라고 불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설치를 위해 미국 바텔 연구소의 용역을 받는 데 380만 달러라는 거액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초청의 경우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AID 원조 사업의 계획과 현지 운영을 위해 미국 해외원조 기구의 한국 사무실에 파견된 직원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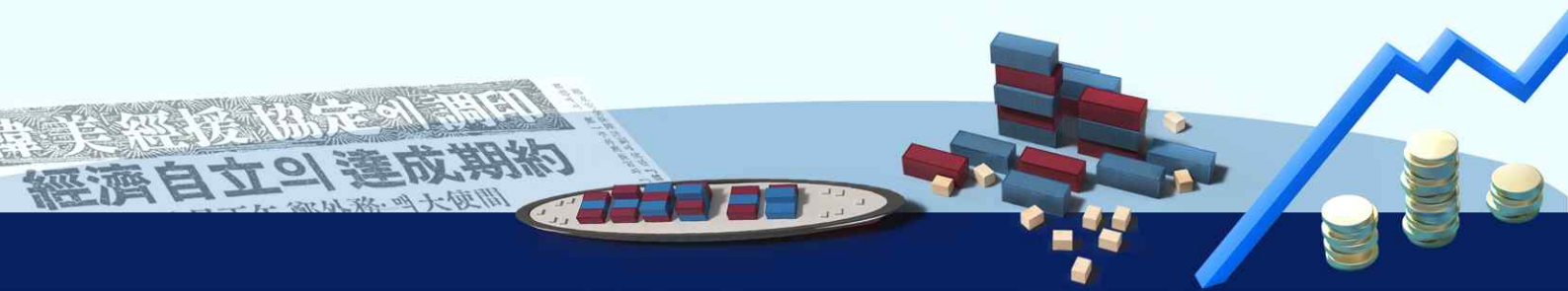


이것은 UN이나 콜롬보 플랜 등 다른 재원의 경우는 대부분 한국 기술 수준으로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전문가들이 초빙되었던 것과 뚜렷이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자는 기자재 도입을 의미했는데, 특정한 해에 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물자 도입액 2,220만 달러 중 34%에 해당하는 760만 달러가 1968년 한 해에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이 해에는 경찰 장비 현대화에 530만 달러,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을 위해 전국 각 보건소의 의료 기재, 차량 등의 도입에 130만 달러가 지원되었습니다.

기술자 해외 파견의 경우, AID는 다른 재원들에 비해 한국 정부의 비용 부담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73년 『과학기술연감』에 실린 표입니다. UN 기구, 콜롬보 플랜, 기타 국가가 제공하는 해외 파견 프로그램과 비교해보면 AID는 왕복 항공료를 훈련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그 부담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해외원조 기구가 한국에 제공한 기술원조의 특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UN과 기타 재원의 기술원조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10-5 UN과 기타 재원의 기술원조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미국 해외원조 기구가 한국에 제공한 기술원조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UN과 기타 재원의 기술원조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UN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부터 기술원조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1946년부터 정규 예산 중 일부를 기술원조 자금으로 책정하여 소규모 활동을 시작해 왔는데 이것을 '정규 프로그램'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기술원조가 본격화된 것은 1950년에 '확대 프로그램' 또는 EPTA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이때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UN 기술원조기구, UNTAB가 설립되었습니다.

1958년에는 늘어나는 개발도상국들의 기술원조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비교적 규모가 큰 프로젝트 유형의 원조를 담당하는 UN 특별기금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프로그램, 즉 확대 프로그램과 특별기금이 모두 기술원조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1965년 UN 개발계획, UNDP가 탄생했습니다.

1951년은 UN이 최초로 한국에 기술원조를 제공한 해이자 한국이 최초로 기술원조를 받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 해 한국인 3명이 해외로 파견되었습니다.

UNDP의 사업, 정확히는 그 전신인 '확대 프로그램'의 사업이 한국을 대상으로 시작된 것은 그다음 해인 1952년이었습니다. 이 해 한국인 23명이 해외로 파견되어 경제계획, 철도건설, 공공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연감』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1951년부터 1996년까지 UN에서 한국에 제공한 기술원조를 단순 합계해보면 그 절반인 50%가 UNDP와 그 전신을 통해서 제공되었습니다. 그다음은 UN 아동기금 14%, 국제원자력기구 8%, 세계보건기구 7% 등의 순서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1961년 4월 UNDP의 전신 중 하나인 UN 특별기금과 '한국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 사회, 기술 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1963년 1월에는 UNTAB와 UN 특별기금의 서울 사무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사무소는 1965년 기구 통합에 따라 UNDP 현장 사무소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UNDP의 원조는 국가협력사업 도입 이전과 이후로 구분됩니다. UNDP가 원조 방식을 바꾸어 국가협력사업, 즉 Country Programme을 시작한 것은 1972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수원국 정부가 특정 사업을 신청하면 UNDP에서 이를 심사하여 승인되면 지원하였습니다. UNDP의 의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협력사업이 도입된 후에는 필요한 사업을 수원국 정부가 스스로 선별하고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협력사업 도입 이전부터 보겠습니다. 1950년대에도 UN의 기술원조는 있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1971년까지 지원된 사업들은 농림수산업과 경공업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식량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식량 수입을 위한 외화 지출이 문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시급한 해결 과제인 식량 자급을 위해, 한국 정부와 UNDP는 농작물 생산, 토양 연구, 수질관리, 토지개간 등에 관한 각종 기구를 설립하고 이 분야 연구를 돕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국가협력사업이 도입된 1972년부터는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맞추어 1996년까지 5년 단위로 5차에 걸쳐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제6차 사업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제7차 사업이 실시되기는 하였지만, 이때는 사업비의 거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했기 때문에 원조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었습니다.

실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실시된 제5차 사업의 경우도 한국 정부의 부담금이 상당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1차 사업부터 제3차 사업까지, 즉 197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정부의 부담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4차 사업에서는 한국 정부가 54만 달러를 부담하였지만, 전체 1,340만 달러의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5차 사업에서는 전체 1,390만 달러의 65%에 해당하는 900만 달러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였습니다.

1차에서 5차에 이르기까지 원조사업의 내역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국가협력사업 이전에는 농림수산업에 원조가 집중된 것과 달리 제1차 사업 시기, 즉 1972년부터 1976년까지의 5년간에는 공업과 과학기술 분야로 초점이 옮겨 왔습니다. 총 41건의 프로젝트가 집행되었는데, 그중에서 공업에 13개, 과학기술에 5개 프로젝트가 배정되었습니다.



제2차 사업 시기, 즉 1977년부터 1981년까지의 5년간은 기술집약산업의 육성이 중시되던 시기였습니다. 기술집약산업으로의 이행에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제3차 경제개발계획에서는 인력개발사업이 중시되었습니다. UNDP의 제2차 사업 역시 여기에 발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UNDP는 중앙직업훈련원, 기술검정공단, 노동과학연구소 등을 지원했으며 이밖에도 기술용역 육성, 청소년지도자 훈련, 경제계획 수립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기술검정공단은 각종 기술자의 자격검정과 시험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반개발 6개, 공업 5개, 과학기술 5개 등 총 23건의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습니다.

제3차 사업 시기, 즉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5년간은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국가 발전에 대한 정책기획 능력 강화, 중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능력 배양, 천연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이용이었습니다.

총 46건의 프로젝트가 실행되었는데, 중화학공업화의 영향으로 공업 분야에 가장 많은 17개 프로젝트가 배정되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아니라 한국 사무소의 한국인 직원들이 책임자로서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 시기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제4차 사업 시기, 즉 1987년부터 1991년까지의 5년간은 연구개발 기구의 설립과 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이 시기 산업공학, 약학, 어업, 광물 탐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연구기관들이 설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 12건, 금액 기준 46%의 원조가 집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환경 분야의 사업이 시작된 것도 주목할 만 합니다.

제5차 사업 시기, 즉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5년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부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 외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업 집행 면에서 제4차 사업 시기까지는 주로 UN의 전문화된 기구들이 사업을 집행하였으나, 이때부터 사업 집행의 주체가 한국 정부가 되는 국가집행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사업 내용 면에서는 삶의 질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및 인간 개발 영역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UN의 기술원조를 검토해 보았는데, 다음으로 기타 재원에 의한 기술원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정부 통계와 OECD 통계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주로 일본과 독일의 기술원조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서는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연감』에 기초해 말씀드리고자 하며, 따라서 일본과 독일의 원조를 과소평가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콜롬보 플랜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간 기구로서, 수원국이 요청하면 수원국과 공여국이 직접 교섭하는 양자 간 협력 형식으로 기술원조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62년 콜롬보 플랜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 해 한국인 훈련생 25명을 해외로 파견하였습니다.

콜롬보 플랜 회원국 중 한국에 기술원조를 제공한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6개국이었습니다. 『과학기술연감』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1980년 현재 완료된 사업은 모두 5억 8천만 달러였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중 95%가 미국으로부터 제공되었습니다. 한국인 훈련생 파견 인원으로 보면 미국이 4,050명, 일본이 2,083명으로 전체 7,767명의 52%와 27%를 차지했습니다.

콜롬보 플랜 하의 기술원조는 물자 도입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1962년부터 1991년까지의 원조 도입액을 단순 합계했을 때, 물자 도입이 53%, 파견이 32%, 초청이 15%였으며 용역은 미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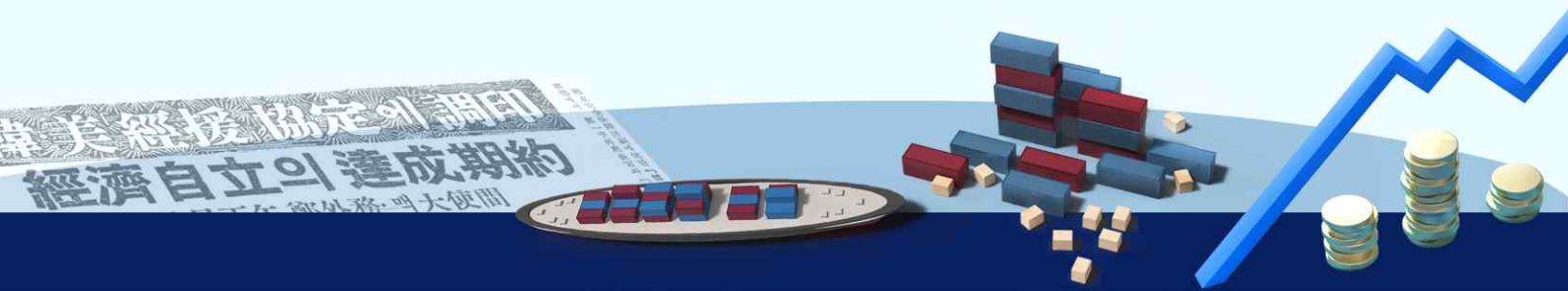
미국 해외원조 기구, UN, 콜롬보 플랜 외에 기술원조를 제공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 특히 독일은 각종 연구소와 직업훈련원 등을 설립하는 데 대규모 기자재를 제공하고, 그 운영에 관한 용역도 제공함으로써 산업 진흥 토대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독일의 기술원조는 1967년 발효된 한독 기술협력 협정에 근거를 두었으며, 1972년부터 1980년까지 매년 한·독 경제실무 회담이 개최되어 여기서 각 연도의 기술원조 규모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프랑스와는 1965년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 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후, 2년마다 개최된 위원회를 통해 주로 연수생 파견 형태의 기술원조가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UN과 기타 재원에 의한 기술원조의 특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원조의 도입에 대하여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0-6 강의 요약 정리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UN과 기타 재원에 의한 기술원조의 특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원조의 도입에 대하여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원조의 개념입니다. 기술원조란 인적 자본을 늘리거나 경제 전체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원조입니다. 크게 장학생이나 실습생 형태의 학습 지원, 전문가·교사 등의 공급 지원, 개발도상국에서 대두되는 문제의 연구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각각 파견, 초청, 용역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기술원조가 본격적으로 천명된 것은 1949년인데, 이 해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을 강조했고 유엔총회는 기술원조 확장프로그램을 개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OECD 통계를 활용해 기술원조의 국제적 추이를 정리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기술원조는 ODA 중 20%대 비율을 유지하며 ODA와 함께 증가했습니다.

2020년 달러 가격 기준으로 2006년 원조액은 1960년의 5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 ODA 중 비율이 감소해 2020년에는 10%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중에는 인력 유출 문제 등 기술원조에 대한 비판 여론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기술원조의 주요 공여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었습니다. 2020년 달러 가격 기준으로 1966년부터 2020년까지 합산했을 때 미국이 전체 기술원조의 20%, 독일이 16%, 프랑스가 14%, 일본이 8%를 제공했습니다.

이 비율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어서, 미국은 1960년대 후반에는 전체 기술원조의 33%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2010년대에는 5%만을 제공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1960년대 후반에는 8%만을 제공했지만 2010년대에는 28%를 제공했습니다.



기술원조를 수혜 대륙별로 보면 1990년대까지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에 가장 많은 금액이 제공되었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ODA 총액의 경우는 1970년대 전반까지 아시아 대륙 국가들에 제공된 금액이 아프리카 대륙의 2배 정도였고, 1970년대 말부터는 비율이 비슷해졌습니다. 이것과 비교해보면 기술원조가 오랫동안 아프리카 대륙들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기술원조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51년이며 도입 금액은 1960년대에 증가했다가 1980년대 이후 감소했습니다. 한국 정부 통계는 기술원조를 파견, 초청, 용역, 물자라는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파견이 가장 먼저 1951년에 시작됐고 초청은 1953년, 용역과 물자는 1956년에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는 용역, 70년대는 물자, 1980년대는 파견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기술원조의 재원은 크게 미국 해외원조 기구, UN, 콜롬보 플랜, 기타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에는 그 중 미국 해외원조 기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UN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각 재원별로 내역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해외원조 기구는 1954년 한국인 10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시작해 1978년 종료됐습니다. 단순 합계로 1억 2,600만 달러가 제공되었는데 그 중 용역이 39%, 초청이 32%, 물자가 18%, 파견이 11%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초청은 주로 한국 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한 것이어서 한국 정부가 직접 원하는 전문가를 초빙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인 해외 파견의 경우도 타 재원보다는 훈련생 비용 부담이 큰 편이었습니다.

미국 해외원조 기구 중 1950년대에 활동한 FOA와 ICA의 경우 1956 회계연도부터 '기술협조'라는 카테고리의 원조를 제공했는데 기술원조 전체가 아닌 일부이지만 분야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 6월 말 현재 도입액 누계를 보면 교육 분야가 27.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광공업, 농업 및 자연자원, 공공행정의 순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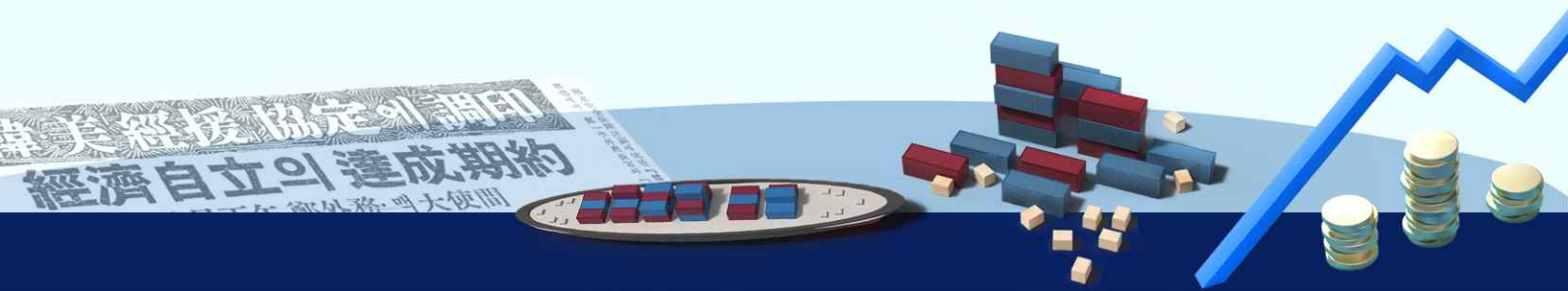


끝으로 기타 재원의 기술원조를 보겠습니다. 1951년 한국에 최초로 기술원조를 제공한 곳이 UN 이었습니다. 그 중 UNDP가 UN 기술원조의 절반을 담당했습니다. UNDP는 1972년부터 한국 경제 개발5개년계획에 맞추어 5년 단위로 국가협력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UNDP가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제4차 사업부터는 한국 정부도 비용을 분담했습니다. UNDP의 국가협력사업은 각 시기별로 5개년계획의 중점사업에 대응해 공업, 인력개발사업, 중화학산업, 과학기술, 환경 및 인간개발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콜롬보 플랜은 일종의 상호 협력 기구로 한국은 1962년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회원국들로부터 기술원조를 제공받기 시작했는데 1980년 현재 완료된 사업 기준으로 95%의 자금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원조의 도입에 대하여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는데, 이것으로 열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이 공여국으로서 해외에 제공한 원조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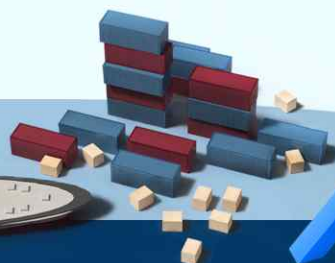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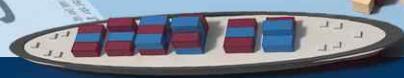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韓美經援協定에 調印
經濟自立의 達成期約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10

Technical Assistance to Korea

10-1

Concept of Technical Assistance

Hello. I am Ryu Sang-yun. This is Korean Economy and Foreign Aid. Welcome to this course of the history of Korean economy. In this lecture, we'll look at technical assistance, a little different from other a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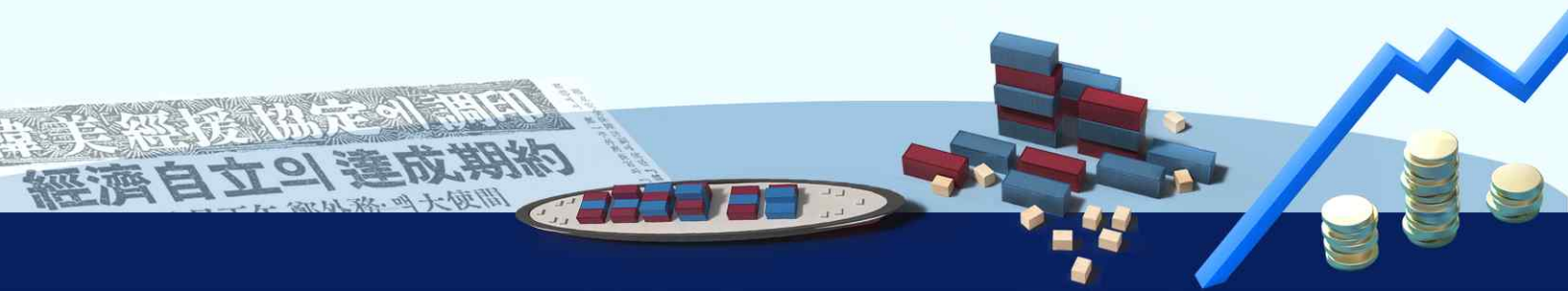
Let's talk about the fundamentals. This is a production function. Gross domestic product is the function of technology level, physical capital, human capital, and labor. Using the population as labor, we can get GDP per capita. GDP per capita is the function of technology level, physical and human capital per capita.

The key of modern economic is the growth of GDP per capita. According to the formula on the screen,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growth of GDP per capita are technological advancement, increases in physical and human capitals.

The project aid and concessional loans that we have reviewed so far have generally played a role in increasing per capita physical capital. In contrast, the technology aid that we will be examining in this lecture can be seen as aid that focuses on increasing per capita human capital or improving the overall technology level of the economy.

There are two types of technical assistance. It can be included, along with physical assistance, in projects through aid and loans. Or, it is provided solely for increasing human capital or improving technology.

They used to have separate names. This is from the Technical Assistance Manual from World Bank written in October 1994.



"The Bank uses the terms "technical assistance" (TA) and "technical cooperation" (TC) interchangeabl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distinguishes between TC and TA: TC relates to freestanding activities that have the primary purpose of increasing the stock of the recipient's human intellectual capital and its institutional capacities; TA relates to labor and expertise provided as part of the implementation of capital projects."

OECD called freestanding technical aid as technical cooperation and technical aid, which was an element of a physical project, as technical assistance.

Currently, OECD does not emphasize these definitions. The term, TA, is rarely used. TC is mainly used when referring to independent technical assistance. 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FTC, is also used.

In this lecture, we'll review the global trend of technical assistance from OECD reports and statistics, focusing on FTC. The translation of the term, technical cooperation, is not the same as that of the term, technical assistance. But the topic is still technical assistance.

OECD DAC's 2005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explains TC throughout a whole chapter. This is the first page of it. In the box, we can see that TC had always played a central role in aid programs. But, it was criticized. To review the controversies, a separate chapter was prepared.

The report explained that TC mainly consisted of three parts. First, scholarship and training programs. Second, financial aid for employing experts, teachers, and volunteers from donor countries, local areas, or other countries. Third, research on issues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ropical diseases.



These three can be seen as dispatch, invitation, and research service in the recipient's view. Dispatch, invitation, and service are the terms used in the Korean government's statistics. The report points out that, in some cases, the amount of TC was more than the education expenditure of the recipient countries. In 2001, they were Cambodia, Zambia, and Tonga.

Think about the history of TC. Scholarship programs are important. So, technical assistance was first started by the Rockefeller Foundation in 1913 and by the Ford Foundation in 1936 before governments.

Technical aid by governments started right after the World War II. After 1945, the US led foreign aid programs. In January 1949, President Truman emphasized technical aid to less developed areas in his second inaugural speech.

It was the fourth item of the speech, and it is called Point IV. With that, Technic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as to coordinate with ECA. TCA, later, was merged with FOA, and technical aid has become part of US foreign aid.

Around the time, UN also started technical ai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and knowledge to develop economy, the UN member states agreed on technical aid using UN funds in 1949. Then, the technical aid expansion program started. To manage this, Technical Assistance Board was established. The program and the board were merged to UNDP 1965.

Later, technical aid expanded to more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UK support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former colonies. Germany and Japan included technical assistance in their foreign aid.

IMF has a program for sending experts to developing countries for improving the role of central banks, tax systems, and statistics systems.



Criticism arose around technical aid. Foreign aid is generally tangible, but technical aid is intangible. The effect of it has been controversial. It was pointed out that skills and knowledge are not easily transferable.

We'll look at two issues from the 2005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First, brain drain. I mentioned scholarship and training programs, as one of elements of TC. It usually takes place in the donor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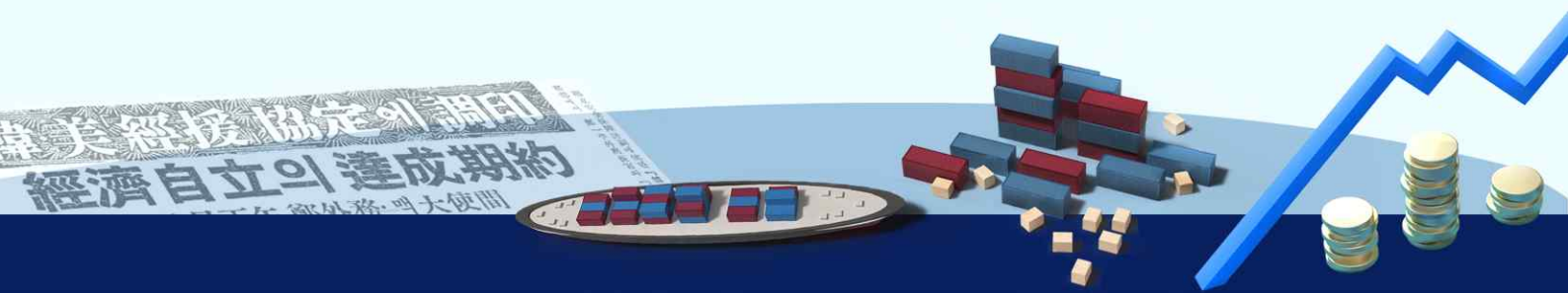
The donor expects that the trainees will go back, share the knowledge, and contribute to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But the environment of the donor country is much attractive to the trainees. Unlike other aid that increases the recipient country's physical capital, technical aid could lose its meaning if trainees decided to stay in the donor country.

Second, cost of expert dispatch. This is a problem for both the donor and the recipient. Requested by the World Bank, the former Canadian Prime Minister Lester Pearson led the writing of the Pearson Report. The report said that, when the donor spends 100 for expert dispatch, the recipient has to spend 50-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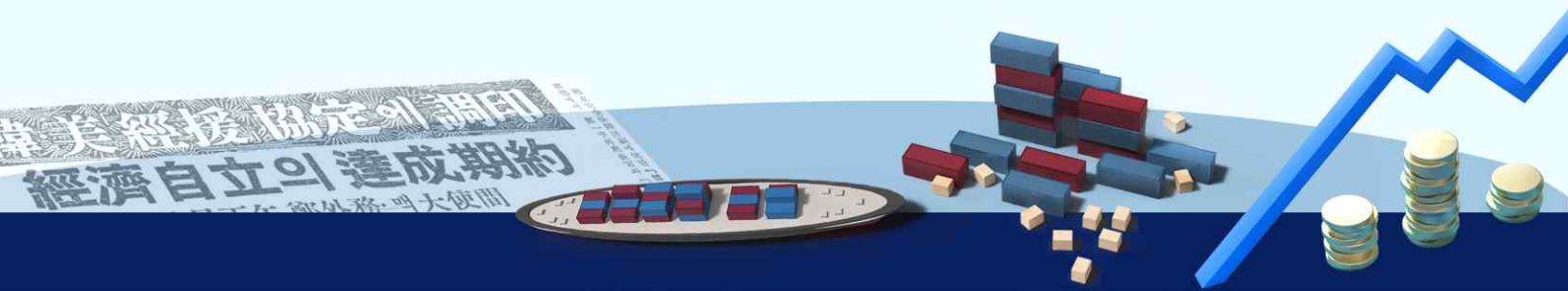
The recipient paid for part of expert's salary, local liaison's salary, office rent, accommodation, and transportation. These days, recipient countries do not pay expert's salary. But I think they still cover the other expenses.

Dispatch cost is burdensome for the donor too. There are other payments other than salary. No wonder the effectiveness of it was in question.

The 2005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says that, out of the total cost for experts dispatched to Jamaica, salary was less than 30%, and child benefit, school tuition, and housing were more than 50%. Finding local experts or ones from neighboring countries was an option but not easy.



We looked at the concept of technical assistance and some issues. Next time, we'll look at the trend of technical assistance using OECD statistics.



10-2 Statistics of Technical Assistance

Hello. In the previous lecture, we looked at the concept of technical assistance and some issues. In this lecture, we'll review the trend of technical assistance using OECD statistics.

There are ODA grants and concessional loans. Net ODA is grants plus gross loans and minus principal and interest repayment. Let's look at OECD's technical aid statistics.

This is OCED DAC1. I picked some items. Here we can see FTC data in bilateral ODA.

Number 4 is experts and other technical aid. Number 5 is scholarship and student fees. FTC is higher than the sum of these two. That means other elements include FTC.

Because DAC1 collected data on bilateral ODA only, we can't know about multilateral technical assistance from it. DAC2a has data on technical aid through multilateral organizations. That is because DAC2s collected data during financial execution process.

DAC1 uses the term FTC, but DAC2a uses the term TC. But when comparing with the amount of technical aid of DAC member countries, the numbers are similar. So, they must be the same concepts.



DAC2a shows the amount of technical aid from multilateral organizations in depth. But it shows the amount of bilateral technical aid from 1966. That is because until 1965 there was so data by recipient countries. So, we'll basically use DAC2a. But for the amount of bilateral technical aid before 1964, we'll review the trend in line with DAC1.

The 1960 total of technical aid counted by OECD was \$5.3 billion in the dollar value of 2020. In 2006, it peaked at \$27.1 billio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amount went down. Still, in 2020, \$20.2 billion was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By the early 1990s, bilateral aid was 70-80%,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accounted for 20-30%. From the mid-1990s, the ratio of bilateral aid increased. In 2006, it was 95%.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ratio of multilateral organizations increased. In 2018, it was 15%. After the mid-1990s, the ratio of multilateral organizations stayed near 30% of the total ODA. Comparing to that, technical aid was more focused on bilateral aid.

The donors varied by times, but they were mainly the US, Germany, France, and Japan. In 1980, France was 16%, Germany 14%, the US 13%. Together, they were almost 50%.

In 1980, Japan was only 4%. In 2010, Germany was 23%, France 13%, Japan 11%, and the US 7%.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US's ratio decreased to around 5%. Recently, technical aid to non-DAC member countries is increasing. It is 2% in total.

Technical aid had been 20% of ODA from the late 1960s to the point before the 2007 global financial crisis. Right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ratio dropped significantly. Even after that, it continued to go down unlike the increase in ODA. In 2020, it was 10%.



Let's look at the recipient countries by continents. Africa and Asia received a lot of technical assistance. Until the 1980s, Africa was around 40%, and Asia was 20-30%.

For the total ODA, though, Asia was 40% until the early 1970s, and Africa was 20%. In the early stages, ODA was focused on Asia, while technical assistance was focused on Af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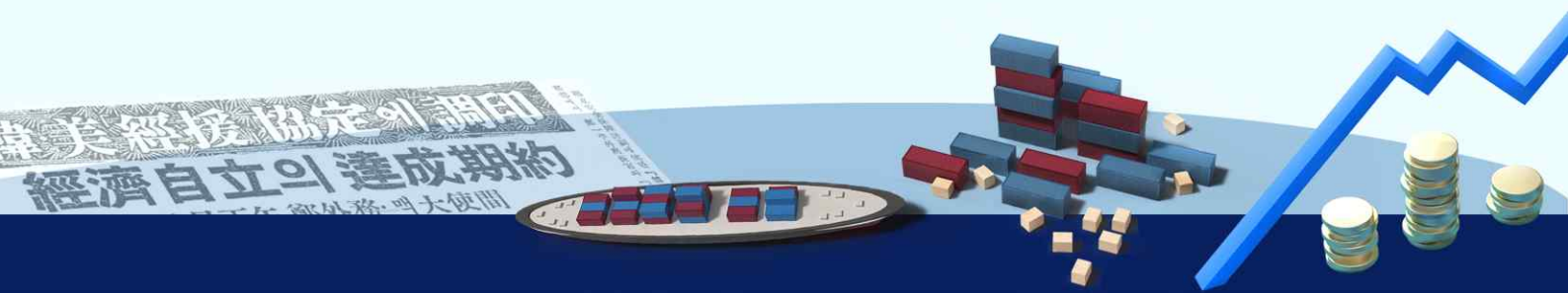
The ratios of Asia and African in the total ODA became similar in the late 1970s. The two countries showed similar ratios in technical assistance after 2000. Africa was the largest technical aid recipient for a long time.

The label Other means the aid that covers multiple areas or cannot pinpoint a recipient. This type of aid increased from the 2000s. It's the same phenomenon shown in total ODA.

Now, we'll divide Asia into Far East, South Central Asia, and Middle East Asia. The Far East, including East Asia and Southeast Asia, received the most technical assistance.

After the 2000s, with their moderat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 Far East, the ratio of their ODA decreased. It was 6% in 2019. However, in technical assistance, the ratio of the Far East was still high even after the 2000s.

We reviewed the global trend of technical assistance using OECD statistics. Next time, we'll look at technical assistance to Korea using data from the Korean government and OECD.



10-3 Technical Assistance to Korea

Hello. In the previous lecture, we reviewed the global trend of technical assistance using OECD statistics. This time, we'll look at technical assistance to Korea using data from the Korean government and OECD.

In 1951, Korea started to receive technical assistance from the UN and recorded statistics. The statistics was included in the Almanac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1960s. This is the 1965 almanac. Technical assistance has four categories: invitation, dispatch, service, and goods.

Invitation means foreign experts are coming to Korea. Dispatch means Koreans are sent to foreign countries. Service means professional services for the issues of Korean economy.

These three are the same as the three types of technical assistance pointed out in the 2005 OECD Report. Lastly, goods are the supplies needed to transfer skills and knowledge, such as research equipment.

The first technical assistance to Korea was dispatch. In 1951, three Koreans were dispatched. It was worth \$9,100. In 1953, one foreign engineer was invited to Korea. The aid was \$6,900.

In 1956, the first service and goods arrived. The aid was \$3.5 million and \$1 million respectively. The total amount of technical assistance kept increasing until the 1980s. In the 1950s, service was 58% of the total. We'll come back to this later when we talk about the FOA, ICA technical aid.



In the 1960s, service was 31%, goods 28%, and invitation 26%. Dispatch was 15%. In the 1970s, goods accounted for 42%, dispatch 26%, and invitation 22%. Service was 10%. In the 1980s, dispatch was 40%, goods 30%, and invitation 27%. Service was only 3%.

For dispatch and invitation, the statistics were based on the number of people. The graph shows that the number of dispatched people was always higher than that of invited people. In 1973, the number of dispatched people was 1,054. In the 1970s, the number of dispatched people per year was round 900. In the 1980, it was around 700.

The number of invited people per year was around 200 from the 1960s to the early 1990s. But dispatch and invitation decreased in the 1990s.

The Korean government collected statistics in 8 sectors. Mining, agriculture and fisheries, education, public administration, transportation, health, and welfare. The Almanac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the data collected until 1977.

In the 1950s, mining was 34%, and public administration was 14%. In the 1960s, mining was 31%, and agriculture and fisheries was 20%. The others were less than 10% each. From 1971 to 1977, agriculture and fisheries accounted for 24%. Mining was 23%, education was 17%, and health was 16%.

The funding sources were in four categories. AID, UN, Colombo Plan, and other. AID means the US aid organizations including FOA, ICA, and AID.

UN means the United Nations and its agencies such as UNDP. Colombo Plan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economic and societal development of Asia and Pacific countries. Other means the countries that are not part of the Colombo Plan, mainly West Germany.



Let's look at the Colombo Plan a little more. The organization was started by the UK and Commonwealth countries as the Asian version of Marshall Plan to prevent the spread of communism in South Asia and Southeast Asia. The name came from the capital of Sri Lanka, where the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gathered and agreed on the plan. The plan was originally temporary, but later it became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UK,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India, Pakistan, and Sri Lanka started the plan. And later, Korea, Japan, the US, and others joined. Korea applied in 1962 and was accepted in 1963.

Under the Colombo Plan, the recipient and donor countries negotiate directly. Korea mainly requested technical aid from the US and Japan. Technical aid from the US was also available out of foreign aid organizations.

The US foreign aid organizations accounted for 98% in the 1950s, and 54% in the 1960s. But in the 1970s, it dropped to 9%.

In the 1960s, the UN technical aid was 32%. In the 1970s, 39% came from other sources, which was mainly West Germany. 35% was from the UN. In the 1980s, the UN technical aid accounted for 44%. Other was 33% and Colombo Plan was 23%.

We reviewed the Korean government's statistics. Now, let's compare it with the OECD data. Let's compare the total amount of technical aid to Korea to the OECD data. The OECD statistics covers the period of 1966 to 1999.

In the OECD data, the ODA technical aid to Korea was 5% in the late 1960s and early 1970s. Last time, we learned that the global average was 20%. It is very low compared to that. This shows that Korea received other types of aid.



The ratio of technical aid increased to 25% in 1979. There were two contributing factors. In the late 1970s, most grants disappeared, which included technical aid. And the repayment of ODA loans surpassed the loan amount, dropping its portion out of the total ODA. So, in the late 1970s, technical assistance took a big part of ODA.

Now, let's compare the two statistics. The two statistics look similar in the period of 1966 through 1975 with a slight gap. In the Korean government's statistics, the amount stays the same or drops in the late 1970s. In the OECD data, it incr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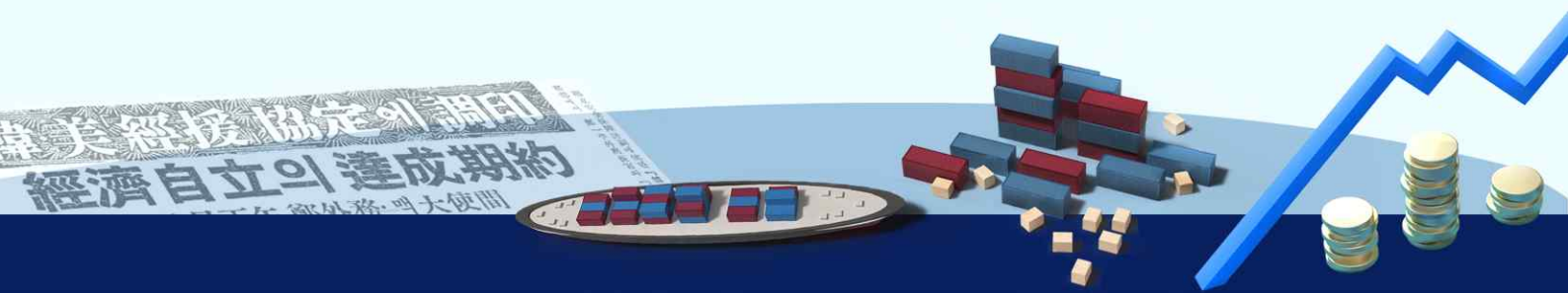
Let's look at the donors or organizations. Unlike the Korean government's statistics, the OECD statistics show the amount of aid by individual donors.

According to the OECD statistics, the US, Germany, Japan, and UN provided technical assistance to Korea. Combined, they accounted for more than 80%. In the Korean government's statistics, the US aid was included in AID and Colombo Plan. Japan was the part of the rest in the Colombo Plan. Germany was included in other sources.

Let's first look at the UN in both statistics. AID aid in the Korean government's statistics and US aid in the OECD statistics were at similar ratios. The slight gap must be from the US aid that went through the Colombo Plan.

Other aid in the Korean statistics and Germany in the OECD statistics were similar until the mid-1970s. The gap started to grow from the late 1970s. Although Colombo Plan in the Korean statistics includes aid from Japan and the US, we'll compare this with Japanese aid in the OECD statistics. They were similar until the early 1970s. And a gap grew from the late 197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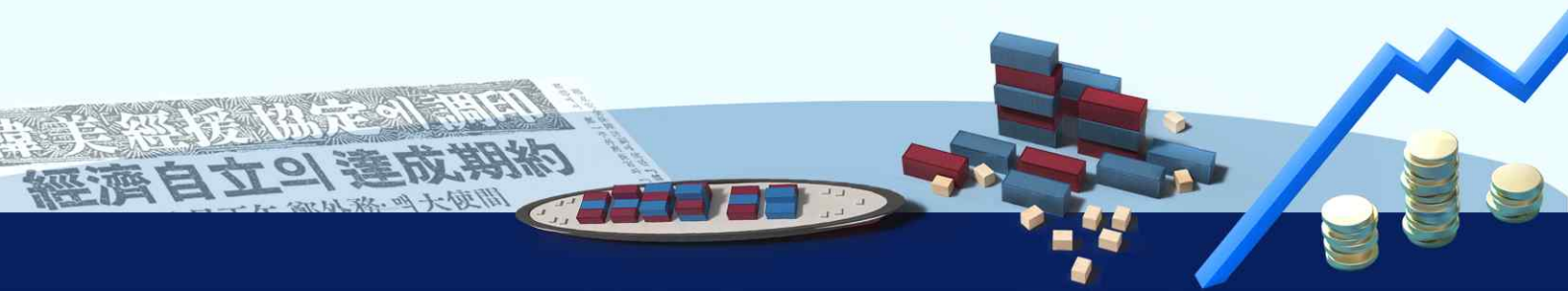
In Korean statistics, the amount of technical aid stays the same or decreases in the late 1970s. But it increases in the OECD statistics. The difference may be caused by Germany and Japan.



The aid that the Korean government didn't see as technical assistance was seen as technical assistance by the two countries. But there is no further information or explanation. It will be a future assignment.

In conclusion, Korea started to receive technical assistance in 1951. And it became active in the late 1950s. In the 1960s, the amount of aid generally increased. The two statistics show different curves in the 1970s and 1980s. So, we cannot determine the amount of technical assistance increased or decreased.

We reviewed technical assistance to Korea using the statistics of from the Korean government and OECD. Next time, we'll look at technical assistance to Korea from the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0-4 US Technical Assistance to Korea

Hello. Last time, we reviewed technical assistance to Korea using the statistics of from the Korean government and OECD. This time, we'll look at technical assistance to Korea from the US foreign aid agency.

According to the Korean government's statistics, in 1954, ten Koreans were dispatched through the FOA/ICA/AID technical aid. In 1956, the amount of technical aid was \$5.3 million, including \$3.5 million of service and \$1 million of goods. In 1959, the total amount of invitation, dispatch, service, and goods was \$12.9 million.

The US collected the statistics in a different way. This is a page of the status report of FOA/ICA program of June 1960. There are three categories: project assistance, non-project assistance, and technical cooperation.

Technical cooperation first appeared in 1956. The approved year and provided year can be different. So, obligations and arrivals also can be different. Obligation means the approved amount. Arrival means the amount actually provided as of June 1960.

The total obligation in 1956 was \$3.9 million. It was \$8.4 million in 1960. Compared to the total obligation of FOA/ICA aid, it was 1.3% in 1956 and 3.8% in 1960. It is 1.7% of the sum of the five years.

By June 1960, 90% of technical aid funding of 1956 and 1957 had arrived. The arrival was 84% in 1958, 43% in 1959, and 26% in 1960. It was lower than non-project assistance arrivals and higher than project assistance arrivals.



As of June 1960, the arrival of technical cooperation was \$18 million. It is much less than the Korea statistics. According to the Korean statistics, the total technical aid under AID was \$37 million until 1959. This means there was more aid other than technical cooperation written in the U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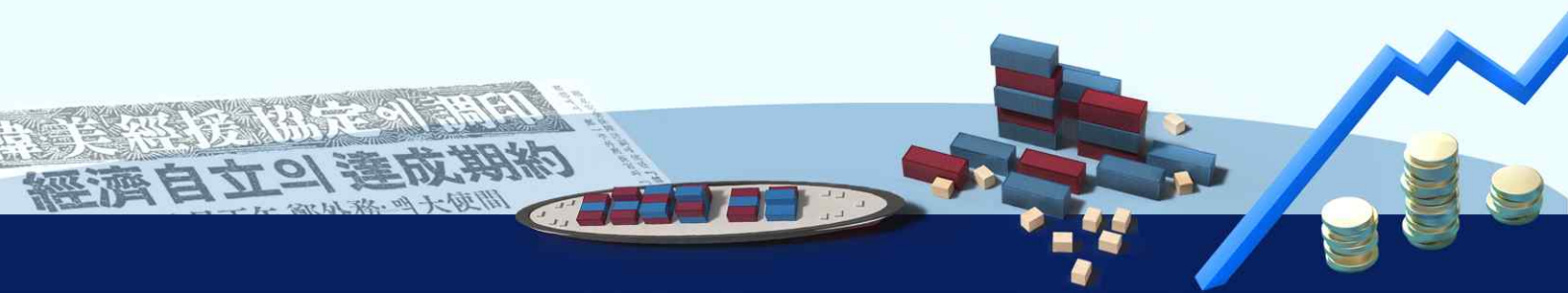
Technical aid was actually included in the FOA/ICA project assistance. This is an excerpt on the 1955 fiscal year project from the program status report of June 1960. There was a thermal power training. There were training dispatches in agriculture and mining projects too.

Project assistance also included services. There was a technical service for power plant rehabilitation in 1955 and a feasibility study for fuel change of the Danginri thermal power plant in 1956. Although technical cooperation was introduced in 1956, some technical aid was done as part of project assistance.

One of the early project assistance projects was the 1965 Minnesota Project. Professor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ch was damaged by the Korean War, were given training programs.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were also provided.

The name came from the University of Minnesota, who signed the project contract with the FOA/ICA. Some say that U of M was chosen because they had agricultural department and shipbuilding department. And others say it was because the FOA head Harold Stassen studied there.

This is a letter from the President of U of M to the President of SNU after signing the 1954 contract with FOA. The project continued until the early 1960s. From 1956, Facility and equipment support was classified as project assistance, and training programs as technical cooperation.



Arther Schneider, Professor of Forestry served as Chief Adviser to the project in Korea. SNU's engineering, agriculture, medical, veterinary, nursing, public health departments, and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were recipients.

Through this project, 218 professors of SNU were trained at U of M for 18 months in average. The professor exchange program was \$3.5 million, facility was \$2.7 million, equipment was \$2.7 million, book cost was \$160,000. The total was over \$9 m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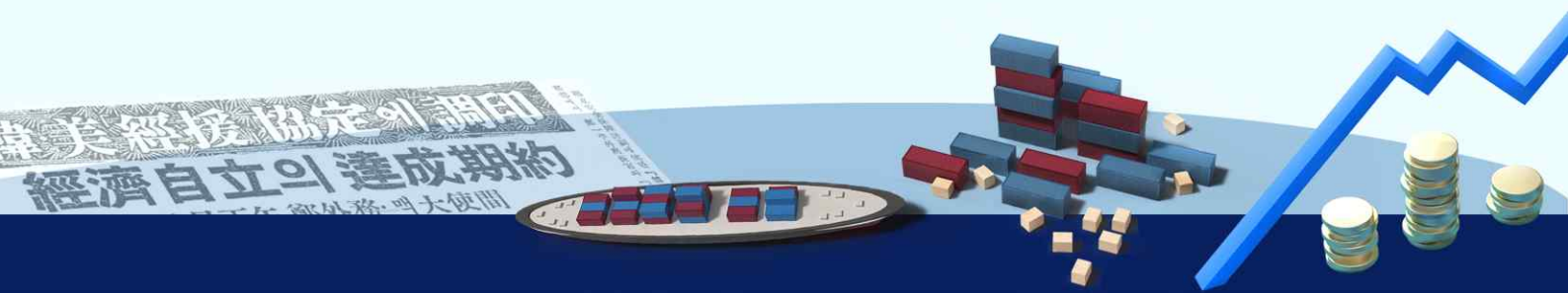
Let's look at trainee dispatch. This is a telegram from sent from the FOA headquarters to the OEC in Korea on 11 December 1954. It has the names of ten trainees in the electricity project and their training centers, where they were going to stay for 6 months.

This project was originally planned as part of the 1954 program, but it got delayed to 1955. According to a related document, the training started in January 1955.

There were more projects under technical cooperation provided by the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When looking at the arrivals as of June 1960, technical cooperation was about a half of the total technical aid.

Now, we'll look at the sectors of technical cooperation. This is based on the arrivals as of June 1960.

The total amount was \$18 million. There were 8 sectors. Education accounted for 27.5%, mining 15.9%,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13.5%, and public administration 10.6%. Local development, social welfare, and housing accounted for 3.2%. Health and sanitary was 2.7%, transportation 1.3%, and labor 0.6%. In contrast, for project assistance, transportation and mining were the main sectors.



Education is divided into three types: technical, middle, and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aid was \$3.8 million, 75% of the total \$5 million. It includes the Minnesota Project and teacher training projects of other universities. Technical education was 21%, and middle school education was 4%.

Mining and industry has mainly four sectors. Mining, electricity and communications, manufacturing, and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Electricity and communications accounted for 37%.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was 29%, and manufacturing was 25%. Mining was 3%.

Until now, we covered the 1950 US technical aid. Now, we'll talk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AID technical assistance to Korea based on the almanac of science and technology.

AID technical assistance to Korea totaled \$126 million for 25 years from 1954 to 1978. 39% of the focus was on service, 32% on invitation, 18% on goods, and 11% on dispatch.

Consultations on special fields were provided as service aid under the contract between AID and US technical consulting firms. AID service aid was provided mainly in the 1950s. After that, it decreased. Exceptionally, in 1967, the amount of service aid was as much as \$49 million.

This was because of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ject. It cost \$38 million for services from the US Battelle Memorial Institute.

There were few invited experts who actually visited Korea. They were mainly the ones who visited to Korean liaison office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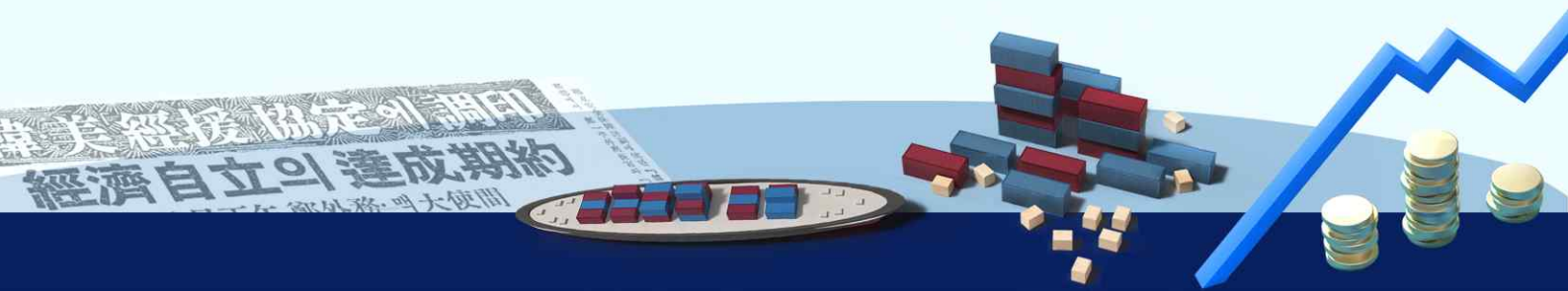


On the other hand, under the UN or Colombo Plan, invited experts actually visited to address technical issues that Korea was unable to deal with alone.

Goods were equipment and supplies. They were delivered in certain years. For example, 34% of the total \$22.2 million goods aid arrived in 1968 alone. Police equipment upgrade project received \$5.3 million, family planning and health project received \$1.3 million.

Compared to other aid, AID's engineer dispatch aid required more funding from the Korean government. This is a table from the 1973 Almanac of Science and Technology. Unlike the dispatch programs from the UN, Colombo Plan, and other sources, AID required trainees to cover their airfare. It must have been quite a burden that time.

We reviewed the US technical assistance to Korea. Next time, we'll look into technical assistance from the UN and other sources.



10-5 Technical Assistance from UN and Others

Hello. Last time, we reviewed the characteristic of US technical assistance to Korea. This time, we'll look at technical assistance from the UN and other sources.

The UN has participated in technical assistance since right after the World War II. They assigned a technical assistance fund for activities, which were called the Regular Program. The earnest start of technical assistance was the Extended Program of 1950. And the Technical Assistance Board was established to manage the program.

To meet the demand for technical aid, the UN Special Fund was established in 1958. Later, there was a suggestion to integrate the Expanded Program and Special Fund. In 1965, the UNDP was established.

In 1951, the UN provided technical assistance to Korea for the first time, which was the first technical aid Korea received. That year, three Koreans were dispatched overseas.

The UNDP, formerly named the Expanded Program, started a project in Korea in 1952. Twenty-three Koreans were dispatched to get training in the fields of economic planning, railroad construction, public management, and others. The Almanac of Science and Technology records that, from 1951 to 1996, more than half of the total UN technical assistance came from UNDP. 14% was from UNICEF, 8% from IAEA, and 7% from WHO.

In April 1961, Korea and UN Special Fund signed an agreement for practical technical assistance to improve Korean people's quality of life and to advance economy, society, and technology. In January 1963, the office of UNTAB and UN Special Fund opened in Seoul. The office later changed its name to the UNDP office in 1965.



The UNDP aid to Korea is divided into two: before and after the Country Program. The UNDP started the Country Program, a new assistance method, in 1972. The recipient used to submit a project proposal to be reviewed and approved by the UNDP. In this method, the UNDP was more influential. However, the Country Program allowed the recipient country to choose needed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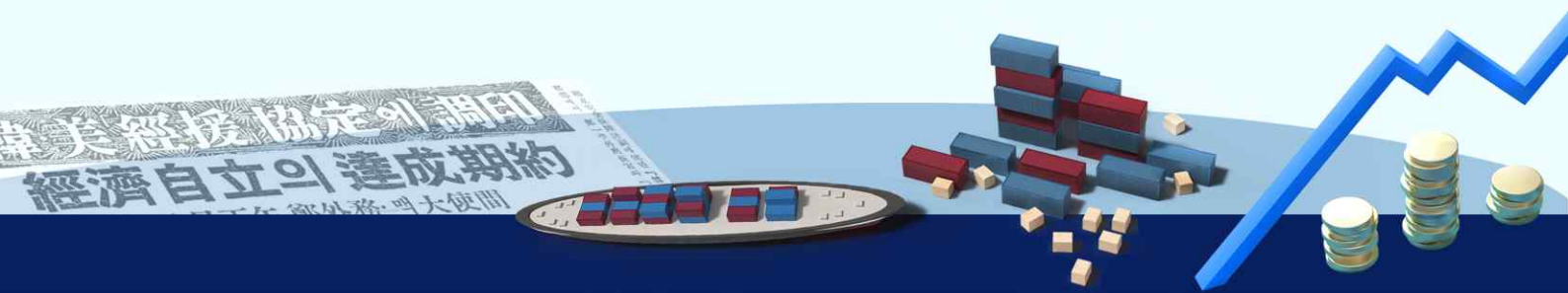
Let's look at the situation before the Country Program. There was technical assistance by the UN in the 1950s, but it was not significant. It became full-scale in the 1960s. In 1970s, it focused on agriculture, fisheries, and light industries.

That time, Korea was heavily dependent on imported foods. For self-sufficiency of food supply, Korea and UNDP set up organizations for farming, soil research,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cultivation.

The projects under the Country Program were aligned with the Korean government's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from 1972. The 6th plan was from 1997 to 2004 and the 7th was from 2005 to 2009, but the plans were funded mainly by the Korean government.

Actually, the 5th plan from 1992 to 1996 was also mostly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From 1972 to 1986, the first, second, and third plans were funded solely by the UNDP. For the 4th plan, Korea funded \$540,000 out of the total \$13.4 million. For the 5th plan, Korea funded \$9 million, which was 65% out of the total \$13.9 million.

We'll look at each plan from the first to the fifth. Before the Country Program, assistance was focused on agriculture. But from 1972 to 1976, industry and science & technology were the main areas. There were 41 projects. 13 was from industry. Five was from science and technology.



From 1977 to 1981, technology intense industry was the main area. This required more skilled manpower. So, the 3rd plan focused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2nd UNDP project was in line with this.

They set up the Central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the Korea Testing Institute of Technical Qualifications, the Labor Science Institute for fostering technical manpower. The KTISTQ integrated technical certification tests. During that period, 23 projects were executed. Six were for general development, five were industry projects, and five were from science and technology.

The third plan was from 1982 to 1986. There were three main areas. Improving policy planning, developing technical skills for heavy chemical industry, developing and utilizing natural energy sources.

Of the total 46 projects, 17 were industrial development projects. Another notable change was that the Korean staff of the Korean office were in charge of the projects not foreign experts.

The fourth plan was from 1987 to 1991. The main activities were establishing research centers and invigorating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Various national research centers were set up: industrial engineering, pharmacy, fisheries, and mineral resources. Twelve projects were assigned with 46% of the total aid. During this time, environmental projects started.

The fifth plan was from 1992 to 1996. Other than the increase in the Korea government's expenditure, there was a big change.

Unlike the projects in the earlier plans, projects were executed with the Korean government in charge instead of the UN organizations. Also, the environmental projects and human development projects were emphasized for the quality of life.



So far, we reviewed the UN technical assistance. Now, let's move on to the technical assistance by other sources. As we saw in the previous lecture, there is a gap in the amount of technical assistance from Japan and Germany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s statistics and the OECD statistics. Here, we'll refer to the Almanac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might underestimate the aid from Japan and Germany.

The Colombo Plan,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of Asia and Pacific countries, provided bilateral technical assistance on the request from the recipient country. Korea joined the Colombo Plan and dispatched 25 trainees overseas in 1962.

The US, Japan, UK, Australia, New Zealand, and Canada provided technical assistance to Korea through the Colombo Plan. According to the Almanac, by 1980, projects worth \$580 million were completed. Among them, 95% were aided by the US. For the number of dispatched trainees, the US was 4,050, Japan was 2,083. 52% and 27% of the total was 7,767, respectively.

The ratio of goods aid in the Colombo Plan assistance was high. Based on the amount from 1962 to 1991, goods aid was 53%, dispatch was 32%, invitation was 15%, and service was the 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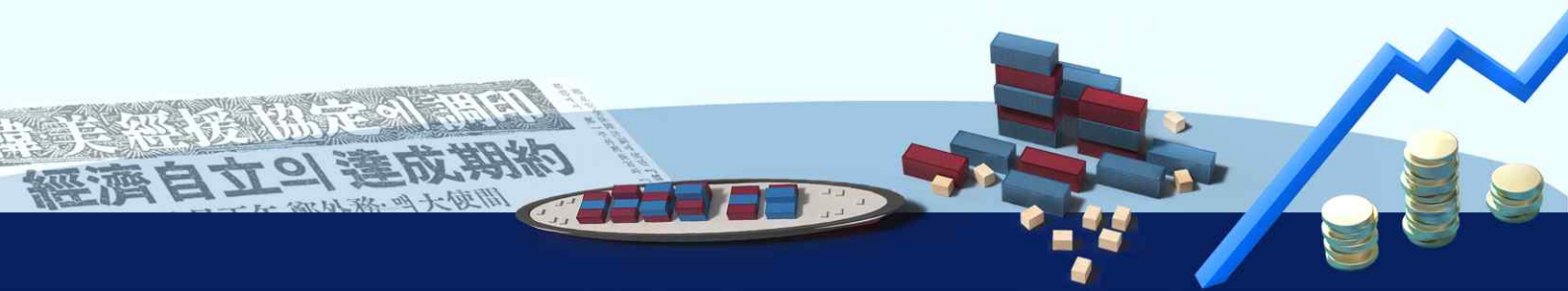
Other than US foreign aid agencies, UN, Colombo Plan, technical assistance came from Germany and France. In particular, Germany provided supplies needed for establishing research centers and training institute, and operation services, contributing to laying out the foundation for industrial development.

Based on the 1967 Korea-Germany 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 economic working group meetings were held every year from 1972 to 1980 to select the projects and decide scale of technical assistance.



After the 1965 Korea-France Cultural and 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 was signed, board meetings were held every two years and trainees were dispatched.

We reviewed the technical assistance through the UN and other sources. Next time, we'll summarize the lectures.



10-6 Summary

Hello. Last time, we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technical assistance through the UN and other sources. This time, we'll summarize technical assistance t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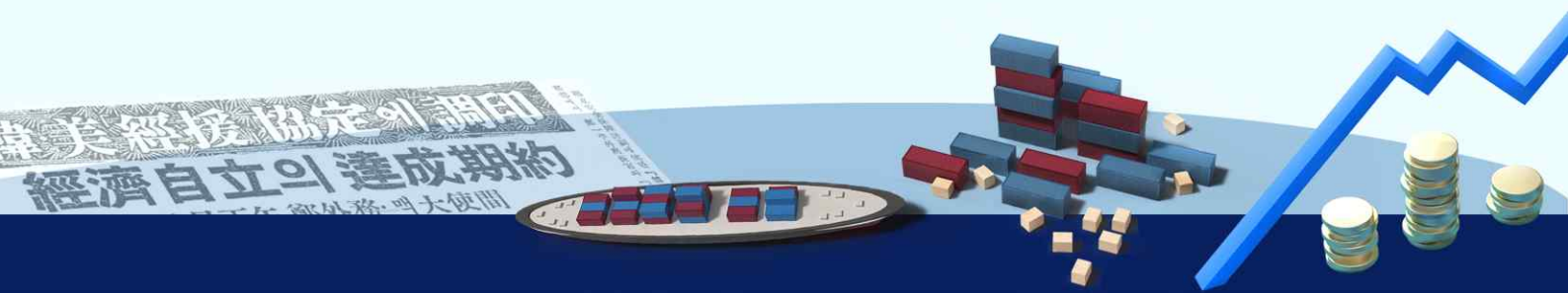
First, the concept of technical assistance. Technical assistance refers the aid focused on expanding the human capital or improving the technical level of the overall economy. It usually consists of the educational support through scholarship or training, supply of experts and teachers, and research on issues of developing countries. These can be called dispatch, invitation, and service, respectively.

Technical assistance was first declared in 1949. That year, US President Truman emphasized the technical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in his second inaugural speech and the UNGA agreed on the inception of the technical assistance expanded program.

Let's look at the global trend of technical aid using OECD statistics.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echnical aid was around 20% of ODA and increased with ODA.

In the dollar value of 2020, the amount of aid of 2006 was five times of that of 1960. After 2007, it decreased. In 2020, it was 10%. There must have been many reasons. Among them, criticism against technical assistance, such as the issue of brain drain, must have been included.

The main donors were the US, Germany, France, and Japan. In the dollar value of 2020, of the total amount of technical assistance from 1966 to 2020, 20% was from the US, Germany was 16%, France was 14%, and Japan was 8%.



The ratios vary from season to season. The US provided 44% of the total technical assistance in the late 1960s, but it was 5% in 2010. However, Germany provided 8% in the late 1960s, and 28% in 2010.

African countries received the largest amount by 1990s among other continents. From the 2000s, African and Asia became similar. As for ODA, Asia received twice the amount of Africa until the early 1970s. From the late 1970s, the ratios became similar. Compared to this, we can tell that technical assistance was focused on Africa for a long time.

The first technical aid to Korea was in 1951. The amount increased in the 1960s and started to decrease in the 1980s. The Korean government's statistics classifies technical assistance into four types: dispatch, invitation, service, and goods. Dispatch first started in 1951, invitation in 1953, and service and goods in 1956. The most aided type was service in the 1950s and 1960s, goods in the 1970s, and dispatch in the 1980s.

There were four major sources: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UN, Colombo Plan, and others. In the 1950s and 1960s,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were the largest donor. In the 1970s and 1980s, UN was the largest donor.

Let's look into the sources a little more.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first dispatched ten Koreans in 1954 and ended in 1978. Of the total \$126 million, service was 39%, invitation 32%, goods 18%, and dispatch 11%.

Foreign expert invitation was usually sending experts to the Korean offices. It was different from direct invitations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Korean trainee dispatch was more financially burdensome to the traine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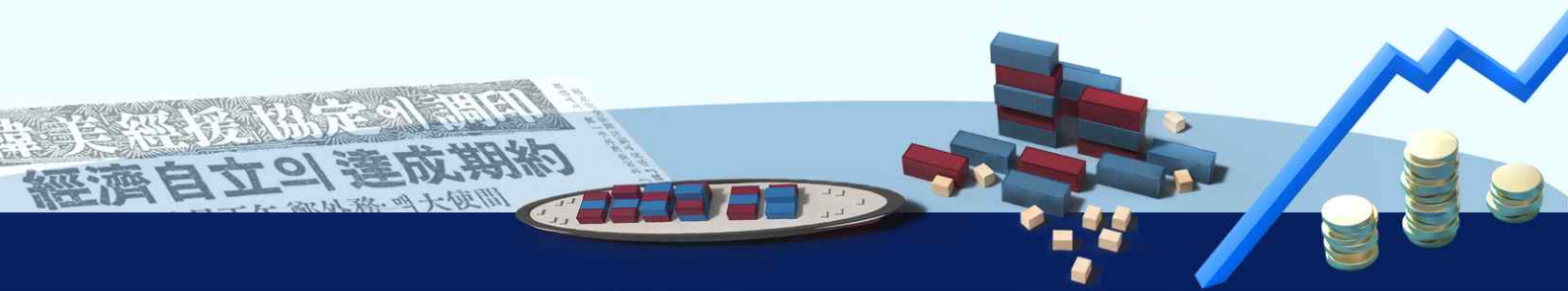
The FOA and ICA started to provide technical cooperation in 1956. Although it shows partial information on the amount of technical assistance, we can check the amount of each area. By June 1960, education was 27.5% followed by mining and industry,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order.

Lastly, we'll look at technical assistance from other sources. The first technical assistance came from the UN in 1951. UNDP provided half of it. UNDP carried out the Country Program in line with the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of Korea from 1972.

In the beginning, UNDP paid all expenditures. From the fourth plan, Korea shared the expenses. UNDP's Country Program, in response to each five-year plan's main projects, was focused on industry, manpower development, heavy chemical industry, science & technology, and environment and human development.

The Colombo Plan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Korea joined in 1962. The member countries started to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hat year. Based on the projected completed by 1980, 95% of the fund came from the US.

So far, we summarized the lecture on the technical assistance. This is the end of Lecture 10. In the next lecture, we'll look at Korea's contribution to foreign aid as a donor. Thank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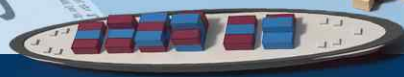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韓美經援協定에 調印
經濟自立의 達成期約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 10 周**技术援助的引进****10-1 技术援助的概念**

各位同学，大家好。我是担任<韩国经济和海外援助>讲座的柳尚润。很高兴认识对韩国经济史感兴趣的各位。本次讲座中，我们将讨论与我们目前为止看到的援助略有不同的技术援助。

回到经济学的原理层面，我们来谈一谈。画面中的表达式是生产函数。任何经济体的生产水平，即GDP，可以说是技术水平、物质资本、人力资本、劳动的函数。这一表达式把劳动视为人口，也可以换成生产力或人均GDP的表达式。(那样的话)人均GDP就会成为技术水平、人均物质资本、人均人力资本的函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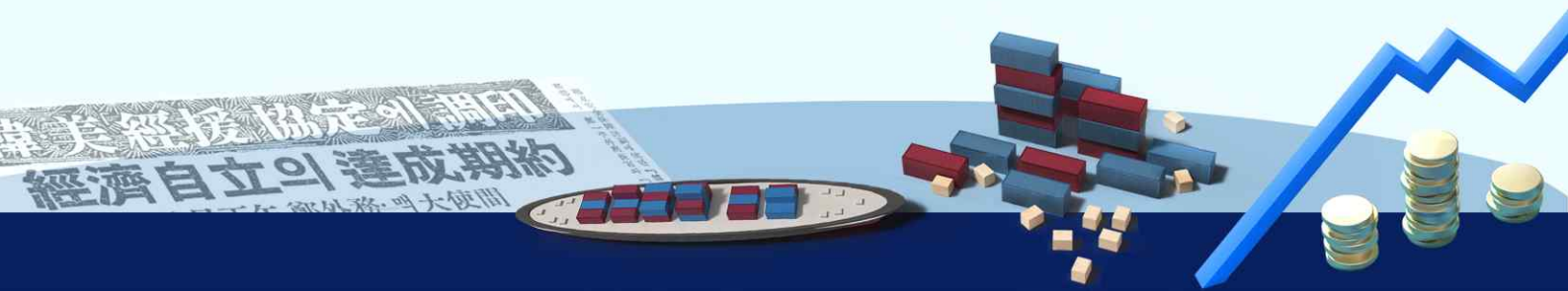
现代经济增长的核心是人均GDP的趋势性增长。根据画面中的表达式，使人均GDP增加的因素有技术水平的提高、人均物质资本的增加、人均人力资本的增加。

到目前为止一直在研究的项目援助和优惠贷款等，通常都承担了增加人均物质资本的作用。相反，本次讲座中重点要讨论的技术援助是增加人均人力资本或提高整个经济的技术水平的援助。

技术援助大体可分为两种。一种是通过赠与或贷款，项目内包含物质援助的同时还包含技术援助，另一种是不涉及项目的组成要素，独立增加人力资本或提高技术水平的援助。

有时也会把两者区分开来。例如，1994年10月世界银行编写的《技术援助》手册在脚注中对其作了如下说明。

“世界银行虽然不区分technicalcooperation (技术合作) 和technicalassistance (技术援助)，然而OECD是将两者区分使用的。OECD使用的TC是指旨在增加受惠者的人力资本存量或提高制度能力的独立活动，而TA则作为投资项目执行的一部分，与提供的劳动或专业技术有关。”



即当时OECD将独立的技术援助称为technicalcooperation，将作为物质项目的组成要素提供的技术支援称作technicalassistance。

现在，OECD也不强调这种区分方式，几乎不使用TA这一术语，但TC这一术语只用于独立的技术援助。有时也会使用Freestandingtechnicalcooperation即FTC这一术语。

本节课，我们要利用OECD的报告书和统计数据来对技术援助的国际趋势进行探讨，因此，我们将会把焦点放在独立提供的技术援助上。如果将OECD的术语直译成韩语，那么比起技术援助，技术合作可能更恰当，但在本课中，我们将使用韩语中大家更熟悉的技术援助这一术语。

OECD DAC（经合组织发援会）的2005年发展合作报告书中，就技术援助专门分出了一章进行了说明。现在所看到的是该章的第一页。从方框的内容中可以了解到，虽然技术援助在援助项目中一直发挥着重要作用，但也有很多批评的声音，为了对争论进行检讨，所以提供了独立的章节。

报告书指出，技术援助主要由三种形式组成。一是给予奖学金或进修生资格，以支援学习的方式进行。二是从援助提供国直接提供专家、教师和自愿活动家，或者提供资金支援以便从当地或其他国家聘用相关人员。三是研究发展中国家出现的问题，例如热带病。

这三者从受惠国的角度来看，分别是派遣、邀请和研究服务。这里的派遣、邀请、服务等术语也是后面我们将要学习的韩国政府统计中实际使用的。同时，报告书还指出，在一些国家技术援助金额甚至超过了受惠国政府的教育相关的支出。2001年，当时柬埔寨、赞比亚、汤加等就是这样。

回顾技术援助的历史，由于奖学金制度是其重要组成部分，因此，实际上首先开始提供技术援助的不是政府，而是1913年成立的洛克菲勒财团和1936年成立的福特财团等民营机构。

政府层面的技术援助在第二次世界大战后正式开始。1945年以后一直主导海外援助的美国，1949年1月杜鲁门总统在他的连任就职演说中强调了对低发达地区的技术援助。



因为是就职演说的第四项，因此也被称为“第四点计划”。据此设立了“技术合作处”，即TCA（技术合作机构），成为与ECA（信用保险机构）并立的机构。TCA后来并入FOA（援外事务管理署），技术援助作为美国海外援助的一部分一直实施至今。

这一时期前后，联合国也开始提供技术援助。联合国成员国们认识到为了经济开发技术和知识的传播（提供技术援助）至关重要，1949年决定利用联合国的资金提供技术援助。据此启动了技术援助扩张项目，并为了对此进行管理设立了技术援助机构。该项目和机构1965年并入UNDP（联合国开发计划署）。

始于美国的“第四点计划”项目和联合国的技术援助扩张项目的技术援助，后来扩大到各国和各国国际组织。例如，英国支援了前殖民地国家的人力培养，德国和日本也在实施海外援助的同时提供了技术援助。

在国际组织中，例如IMF（国际货币基金组织）为了改善发展中国家的中央银行职能，税收制度，统计制度等，运营着短期派遣专家的项目。

随着技术援助的扩大，批评意见也浮出水面。特别是，与普通的海外援助相比（物质援助），技术援助是无形的，因此，对其效果提出了许多质疑。最具代表性的是指出技术和知识是不容易传播的。

在各种具体的批判中，我将介绍记载在2005年发展合作报告书两个论点。一是智力外流。前面说过通过给予奖学金或实习生资格提供支援学习是技术援助的三个组成要素之一。学习的场所主要是援助的提供国。

提供者的期望是，受惠者在获得援助后拓展了技术和知识，他们回到原籍，为当地经济发展做出贡献。然而，对于受惠者而言援助提供国的环境与原籍相比必然是非常有吸引力的。物质援助不管怎样都会使得受惠国的物质资本得以增长，与此相比，如果受惠者不回到原籍而留在援助提供国，那么这种技术援助则事实上就失去了援助的意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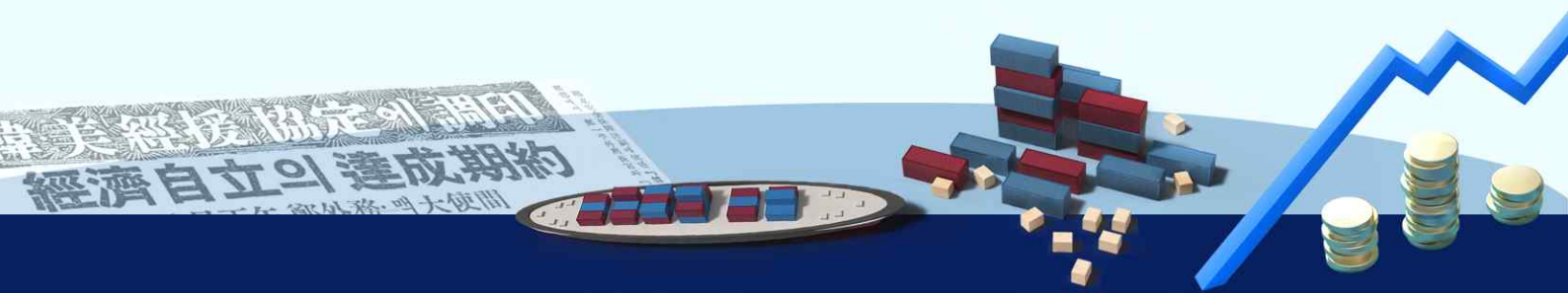
二是派遣专家的成本问题。这一费用在受惠国和援助提供国都存在问题。受世界银行的委托由加拿大前总理莱斯特·皮尔逊担任委员长进行的调查叫皮尔逊报告。根据该报告，如果派遣专家的援助提供国提供100的资金，受惠国同样也需要支付50至140的费用。

受惠国的支出包括专家薪资的一部分、当地对应职员薪金、办公室租金和住宿费以及交通费。现在受惠国也支付一部分专家薪资的情况几乎不存在，因此费用可能有所降低，但其余部分估计仍旧存在。

在援助提供国的立场上派遣专家的费用也并非易事。特别是，除了直接的专业服务费用，即薪资外，还有许多其他费用。派遣的实效性不得不令人怀疑。

根据2005年发展合作报告，在派往牙买加的专家中，全部费用中薪资的比例不到30%，子女津贴和学费，居住租金占了50%以上。虽然也可以考虑在当地或邻国招聘的对策，但很难找到符合援助提供国标准的人才，因此很难采用。

到目前为止，介绍了技术援助的概念和几个论点。下节课，我们将根据OECD的统计来整理技术援助的趋势。



10-2 技术援助的国际趋势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介绍了技术援助的概念和几个论点。这节课我们根据OECD的统计整理一下技术援助的国际趋势。

ODA包括赠与和优惠贷款，在赠与中加上粗贷款额，减去本金偿还额，就是净ODA。然而，OECD统计中，除了这些分类外，还另外合算了技术援助的提供额。

现在所看到的是OECD的ODA统计中的DAC1。我只提取了其中几个项目，可以看到在I.A.双边ODA中单独合算了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独立技术合作)，即FTC。

在双边ODA的组成部分中，有相当于技术援助的第四项专家和其他技术援助，第5项奖学金和来自援助提供国的学生费用，但FTC的金额大于两者的总和。这意味着FTC中也包含了其他要素。

然而，就DAC1而言，由于FTC只合算了双边ODA，因此对多边技术援助知之甚少。通过多边机构的技术援助最好在OECDODA统计中的DAC2a中进行确认。这是因为DAC2a不是从资金来源，而是在资金的执行阶段合算的统计数据。

正如您在画面中所看到的，与DAC1使用FTC这一术语相比，DAC2a直接使用术语TC。然而，如果比较DAC成员国的技术援助额，两者几乎相等，因此可以说两者是相同的概念。

DAC2a更加明确地告知了多边机构的技术援助提供额，但DAC成员国的双边技术援助提供额只显示了从1966年开始的部分。这可能是由于到1965年为止，各受惠国的统计不全。因此，我们将主要利用DAC2a，并把DAC成员国的1964年之前的双边技术援助提供额与DAC1联系起来，探讨技术援助的趋势。

OECD合算的1960年技术援助总额折算成美元（2020年标准）为53亿美元。之后稳步增长，2006年达到271亿美元的峰值。全球金融危机后，这一金额大幅减少，但2020年，仍向发展中国家提供了202亿美元。



按各援助提供国分类，到1990年代初，DAC成员国双边援助的比例为70%至80%，多边机构的比例为20%至30%。然而，1990年代中期开始，双边援助的比例越来越大，在2006年全球金融危机前夕甚至达到95%。

金融危机以后，多边机构的比例再次上升，2018年达到15%。在全体ODA中多边机构的比例与1990年代中期以后维持在20%后半段相比，可以看出技术援助的核心更倾向于双边援助。

各援助提供国的比率因时期而异，但主要提供国包括美国、德国、法国和日本等。例如，1980年，法国为16%，德国为14%，美国为13%，这三个国家的总和几乎达到一半。

这一年，日本的比率仅为4%，但后来逐渐上升，2010年变成德国为23%，法国为13%，日本为11%，美国为7%。美国的比率自全球金融危机以后降至5%左右，是非常低的状态。最近，非DAC成员国的技术援助也在逐步增加，但目前全部合起来也只有2%左右。

从技术援助在ODA中所占的比例来看，从1960年后期到2007年全球金融危机前为止，大体维持在20%左右。然而，在金融危机后，这一比例立即大幅下降，此后，与ODA仍有增加相比，技术援助呈停滞状态，其比率也逐渐下降。2020年甚至下降至10%。

让我们看一下技术援助受惠国在各大洲的分布情况。正如您在画面中所看到的，为发展中国家聚集的非洲和亚洲提供了大量技术援助。到1980年代为止，非洲的比例在40%左右为最高，而亚洲的比例在20%至30%左右。

这与1970年代前期为止在ODA总额中亚洲的比率为40%，非洲的比率为20%相比呈鲜明对比。也就是说ODA在初期以亚洲地区为最主要的技术援助对象，现在则以非洲地区为主要援助对象。

在ODA总额中亚洲和非洲的比率变得相似是从1970年代末开始的。相反，在技术援助方面，进入2000年以后两个地区的比例才变得相似。向非洲提供最多的技术援助的情况已经持续了相当长的时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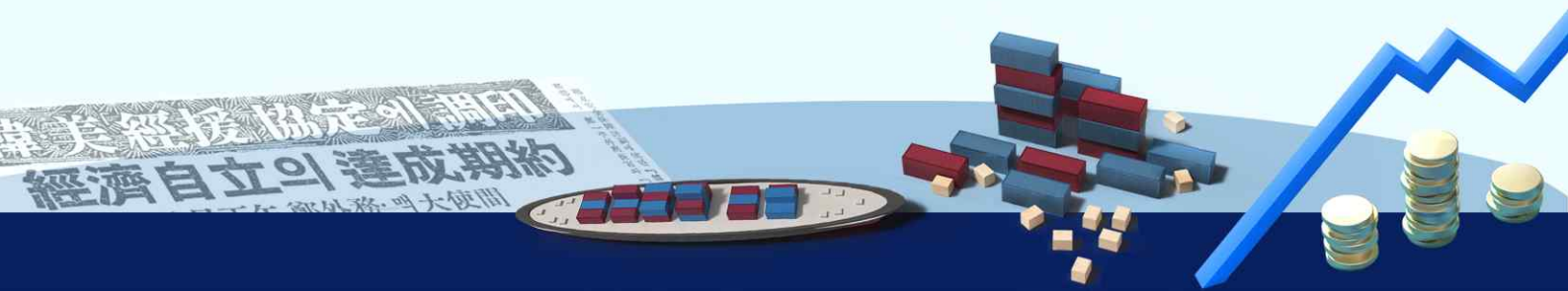


画面上的图表中，“其他”是指跨越多个地区的援助，或无法确定地区的援助。这种援助从2000年开始一直在增加，这是在ODA总额中也能见到的现象。

最后，将包括韩国在内的亚洲地区，根据OECD统计的分类，细分为远东、南亚和中亚以及中东来看一看。可以看出，包括东亚和东南亚国家在内的远东地区获得了最多的技术援助。

在ODA总额中，进入2000年后随着远东地区发展中国家取得了比较优秀的经济成果，远东的比例逐渐减少，2019年甚至下降至6%。然而，在技术援助中，远东的比例格外高，2000年以后也没有明显减少。

到目前为止通过OECD的统计数据探讨了技术援助的国际趋势。下节课我们将通过韩国政府和OECD的统计数据来看一看提供给韩国的技术援助。



10-3 韩国的技术援助引进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通过OECD的统计数据探讨了技术援助的国际趋势。这节课我们将通过韩国政府和OECD的统计数据来看一看提供给韩国的技术援助。

韩国政府自1951年得到联合国提供的最初的技术援助以来，一直对技术援助进行单独统计。该统计在1960年后发行的《科学技术年鉴》上得以公开。画面中所看到的是1965年的《科学技术年鉴》。可以看到技术援助的形式分为邀请、派遣、服务、物资这四种。

邀请是指把外国技术人员、专家请到韩国，学习他们的技术和知识；派遣是指把韩国人送出国接受培训。服务是为韩国经济出现的课题性问题提供专业服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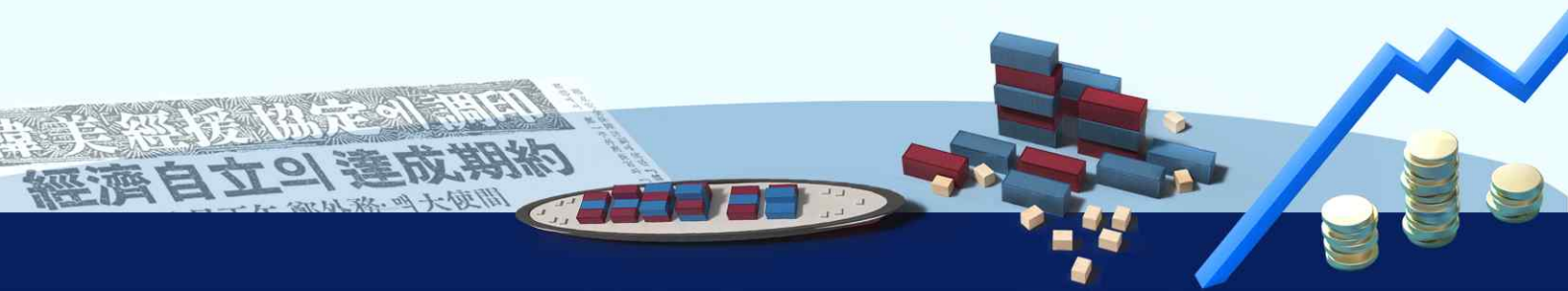
这三种与OECD的2005年发展合作报告中指出的三种技术援助形式相对应。最后，物资是提供传播技术和知识所需的物资，例如研究设备。

向韩国提供的最初的技术援助形式是派遣。1951年，三名韩国人被派往海外。（援助）金额为9100美元。1953年，第一次邀请了外国技术人员，邀请一位可以获得6900美元的资助。

1956年开始引进服务和物资。其金额分别为350万美元和100万美元的规模。技术援助总额之后一直增加，直到1980年以后开始减少。以10年为单位合算各形式的援助构成，可以看到在1950年代，服务占58%，占了一半以上。关于这部分内容后面讲到FOA和ICA的技术支持时将更详细地说明。

1960年代，服务占最多，为31%，但与28%的物资和26%的邀请没有太大区别。派遣的比率是15%。1970年代，物资为42%为最多，其次是派遣为26%，邀请为22%。服务的比例大大降低至10%。1980年代，派遣最多，达到40%，其次是物资为30%，邀请为27%。服务只有3%。

对于派遣和邀请，除金额外，还按人员做了统计。通过画面中的图表可以发现，与金额不同，派遣人员一直比邀请人员多。韩国人派遣从1951年的3人增加到1973年的1054人。1970年代每年派遣900人左右，1980年代每年派遣700人左右。



邀请外国人从1953年的1人开始，1960年以后到1990年代初期，每年邀请200人左右。派遣人员和邀请人员在进入1990年以后，都迅速减少。

韩国政府统计将技术援助分为8个部门。包括矿工业、农林水产、教育、公共行政、交通、保健卫生、社会福祉，其他等。《科学技术年鉴》中收录了至1977年为止的统计值。

以10年为单位进行合算，1950年代矿工业占34%，公共行政占14%，矿工业所占比例最高。1960年代，矿工业的比例也最高，达到31%，其次是农林水产占20%。其余的都不到10%。从1971年到1977年，农林水产的比例最高，达到24%。其次是矿工业占23%，然后是教育（17%）和保健卫生（16%）。

韩国政府的统计还按财源分为四类。分别是AID，UN，科伦坡计划和其他。AID是指与FOA,ICA,AID关联的美国海外援助机构。。

UN是指联合国或其下属UNDP（联合国开发计划署）等各种机构。科伦坡计划是亚太地区各国旨在促进经济和社会发展的相互合作体。其他指未参加科伦坡计划的国家，主要是西德或德国。

对科伦坡计划再说明几点。此机构起初是英国等英联邦国家为了防止南亚和东亚地区共产主义的扩散，决定推动亚洲版的马歇尔计划。科伦坡这个名字因1950年英联邦外长们在斯里兰卡科伦坡聚集，就该计划达成基本协议而得名。最初是一个暂时的计划，但后来被国际机构化了。

在科伦坡计划启动时，成员国有英国、加拿大、澳大利亚、新西兰、印度、巴基斯坦和斯里兰卡这7个国家，但随后韩国、日本和美国等加入其中。韩国于1962年申请加入，1963年正式加入。

通过科伦坡计划的技术援助推进形式是，首先由希望得到援助的国家提出申请，然后由受惠国和援助提供国进行直接交涉，而韩国则主要向美国和日本提出了援助申请。从美国得到的技术援助除了通过海外援助机构的援助外，还有其他援助。

把各财源的比率按10年为单位进行合算，1950年代，美国海外援助机构为98%，占绝大多数，1960年代也达到54%为最高。但是，由于1973年为止终止了，因此1970年代的比率大幅降至9%。



1960年代, 仅次于美国海外援助机构的是占32%联合国。1970年代, 以西德为主要财源的其他财源比例为39%, 为最高, 其次是占比35%的联合国。联合国的技术援助在1980年代达到44%的最高比例, 其次是其他占33%, 科伦坡计划占23%。

到目前为止, 我们了解了韩国政府的统计, 现在让我们将其与符合国际社会ODA标准的OECD统计做个比较。首先, 将提供给韩国的技术援助总额与OECD统计进行比较。OECD的统计收录着1966年至1999年的数值。

在比较之前, 从OECD的统计来看, 韩国从ODA中获得的技术援助所占的比例在1960年代末和1970年代前期为5%左右。上节课我们说过世界平均是20%左右, 与之相比韩国(从ODA获得的技术援助)是非常低的水平。反过来说, 则说明其他形式的援助很多。

然而, 技术援助的比率在1970年代后期开始上升, 1979年达到25%。比率上升的因素有两个。技术援助是一种赠与形式的援助, 但进入1970年代后期, 其他形式的赠与几乎消失了。就ODA贷款而言, 由于与贷入额相比偿还额增加, 因此在全体ODA中的比率减少。因此, 在1970年代末, ODA中很大一部分被技术援助所占。

现在, 让我们比较一下两个统计。正如您所看到的, 从1966年到1975年, 韩国政府和OECD的统计虽然略有不同, 但大体相似。然而, 1970年代后期开始比起韩国政府统计中技术援助额停滞不前或下降的情况, OECD的统计中技术援助额继续增加, 差距拉大。

我们再次将其按提供国或机构进行了比较。韩国政府的统计将财源分为AID、联合国、科伦坡计划和其他4种, 相比之下OECD的统计则告诉了我们各个援助提供国的援助金额。。

OECD统计中向韩国提供技术援助的四个主要国家或机构是美国、德国、日本和联合国。他们占总额的比例一直超过80%。其中, 美国在韩国政府统计中相当于AID和科伦坡计划的一部分, 日本相当于科伦坡计划的其余部分, 德国相当于其他部分。

首先, 在两种比较中都属于同一范畴的联合国, 韩国政府和OECD的统计相似。韩国政府统计中的AID项目与OECD统计的美国相比也较为相似, 略有不同可能是因为有一部分援助是美国政府没有通过海外援助机构而是通过科伦坡计划提供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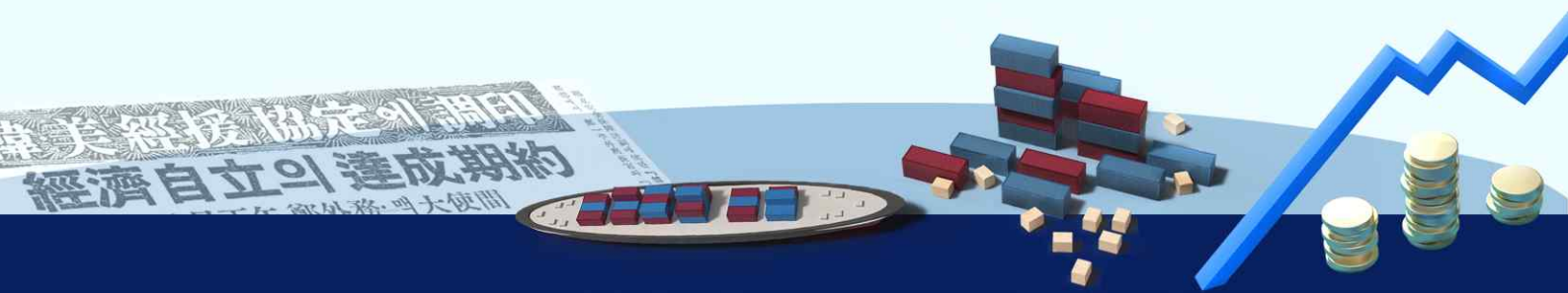
然而，如果把韩国政府统计的其他和OECD统计的德国进行比较，到1970年代中期为止数值是相似的，但从1970年代末开始，OECD的统计数据大大增加。韩国政府统计的科伦坡计划除了日本以外，还包括相当部分的美国（援助），把这一数据与OECD统计的日本相比，1970年代前期为止数据是相似的，但从1970年代后期开始出现差异。

1970年代后期开始，韩国政府统计的技术援助引进额呈停滞不前或下降趋势，但OECD统计的向韩国提供的技术援助额增加，差距逐渐拉大，估计主要是因为德国和日本。

也就是说韩国政府不认为是技术援助的，这两个国家认为是技术援助，但目前因无法了解具体细节，因此很难解释是哪些认识上的差异。可能要把它留作以后的课题。

综合韩国政府统计和OECD统计可以发现，韩国从1951年开始接受技术援助，1950年代后期援助全面展开，援助额在1960年代大体呈上升趋势。技术援助在1970年代是停滞还是增加，1980年代是减少还是增加，两个统计意见不同，所以在这里保留结论。

到目前为止我们通过韩国政府和OECD的统计讨论了提供给韩国的技术援助的趋势。下节课我们再具体看一看美国海外援助机构对韩国提供的技术援助。



10-4 미국해외援助機構의技術援助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通过韩国政府和OECD的统计分析提供了给韩国的技术援助的趋势。这节课我们再具体聊一聊美国海外援助机构对韩国提供的技术援助。

据韩国政府的统计显示，美国海外援助机构，即FOA/ICA/AID的技术援助始于1954年派遣了10名韩国人。1956年，提供了350万美元的服务，并引进了100万美元的物资，技术援助大幅增加至530万美元，1959年，邀请、派遣、服务、物资引进全部加起来甚至提供了1290万美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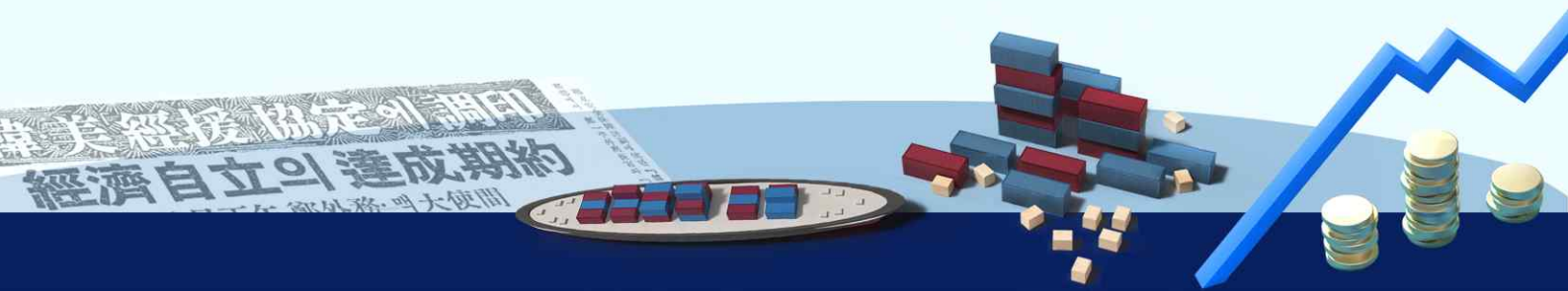
美国援助当局也统计了技术援助，但方式略有不同。现在所看到的是截至1960年6月底的FOA/ICA项目现状报告书中的一页。可以看出，援助大体分成了项目援助、非项目援助和“技术合作”。

“技术合作”至1955会计年度为止是没有的，1956会计年度初次登场。由于相应会计年度批准的金额不一定全部提供给该会计年度，因此有必要将批准额和到达额区分开来看。画面中所看到的“Obligation”是批准额，“Arrivals”是截至1960年6月底的到达额，即引进额。

1956会计年度的技术合作批准额为390万美元，随后逐渐增加，1960会计年度达到了840万美元。与FOA/ICA援助的全部批准额相比，1956会计年度为1.3%，1960会计年度为3.8%。五个会计年度的总和为1.7%。

截至1960年6月底，1956会计年度和1957会计年度的技术合作资金引进已达到90%以上，1958会计年度资金为84%，1959会计年度资金为43%，1960会计年度资金引进了26%。虽然这些引进率低于非项目援助，但高于项目援助。

截至1960年6月底，技术合作的引进总额为1800万美元。然而，这个金额比韩国政府的统计要小得多。因为韩国政府统计中被归类为AID的技术援助引进额，即使仅合算到1959年，也达到了3700万美元。这意味着，除了美国援助当局的报告书中被归类为“技术合作”的部分外，还有其他相当于技术援助的部分。



事实上，在FOA/ICA的项目援助中，也包含了相当于技术援助的部分。画面中所看到的是截至1960年6月底项目状况报告中摘录的1955会计年度项目援助的电力部分。可以了解到为了火力发电所的运营进行了培训。此外，在农业改良项目和采矿领域也开展了海外派遣培训项目。

在项目援助中，还有相当于服务的部分。例如，在1955会计年度为了恢复发电所进行了技术服务，在1956会计年度进行了唐仁里火力发电所燃料转换可行性调查。在1956会计年度，出现了技术合作这一分类，但一些技术援助是作为项目援助进行的。

在项目援助下进行的最早的技术援助中，有1954会计年度的明尼苏达项目。该项目旨在为因战争变为废墟的首尔国立大学的重建，为教授们提供进修项目，并支援图书馆、研究所等的设施和设备。

由于FOA/ICA与美国明尼苏达大学签订了合同，并把该项目委托给了他们，因此它被命名为明尼苏达项目。明尼苏达大学之所以被采纳，有人说是因为有农大和造船工学系，还有人说，曾任FOA署长的哈罗德·斯塔森 (Harold Stassen) 是明尼苏达州州长出身。

现在所看到的是1954年与FOA签署合同后明尼苏达大学校长写给首尔大学校长的信。项目一直持续到1960年代初，从1956会计年度开始，设施和设备支援被归类为项目援助，进修项目则被归类为技术合作。

明尼苏达大学林学系的阿瑟·施耐德 (音译) 教授担任常驻首尔大学的首席顾问开展事业。援助对象在当时首尔大学12个学院中工学院、农学院和医学院被选中，后来又增加了行政研究生院、兽医学院、护理学院和保健研究生院。

通过该项目首尔大学的218名教授在明尼苏达大学接受了平均18个月的培训。首尔大学收到的援助的总额，在交换教授项目方面为350万美元，设施270万美元，设备270万美元，图书费16万美元，共计超过了900万美元。



接下来，我们来了解一下在项目援助下进行的培训生派遣案例。现在所看到的是美国国家档案局收藏的文件之一，1954年12月11日从FOA华盛顿总部发往驻韩经济协调办公室的电文。电文中记载着要接受电力相关培训的10个人的名字，以及每个人计划访问6个月的机构的名称。

此派遣项目最初是作为1954会计年度项目的一部分而规划的，但因准备工作推迟，因此被转移到1955会计年度。当时的文件显示，实际培训似乎是从1955年1月开始进行的。

像这样美国海外援助机构提供的技术援助，除了援助当局归类为“技术合作”的项目外还有其他的。从截至1960年6月底的到达额情况来看，技术合作似乎覆盖了技术援助的约一半左右。

考虑到这一点，让我们来看一下技术合作的构成。（这是）截至1960年6月底以到达额为标准计算出来的。

共引进了1800万美元的“技术合作”，除其他外，主要分为八类。从比例大的开始介绍，教育占27.5%，矿工业占15.9%，农业和自然资源占13.5%，公共行政占10.6%。除此之外地区开发、社会福利和住房占3.2%，保健和卫生占2.7%，交通占1.3%，劳动占0.6%。这与项目援助压倒性集中在交通和矿工业形成了鲜明对比。

比例最高的教育又分为技术教育、中等教育、专业及高等教育。其中，专业和高等教育为380万美元，占教育类别500万美元总额的75%。从详细明细上看，它包括前面提到的明尼苏达项目和其他大学的教员培训项目。此外，技术教育占21%，中等教育占4%。

比率排在第二位的矿工业（的构成中），除其他外，分为四个领域。分别是采矿、电力通信，制造业、工程及建筑等。其中，电力通信为100万美元，占矿工业类别2800万美元总额的37%。其次是29%的工程和建筑，25%的制造业。采矿业仅占3%。

到目前为止，简要回顾了技术援助中美国海外援助机构占据压倒性高比率的1950年代后期的状况。最后，根据《科学技术年鉴》的统计和叙述，介绍一下向韩国提供的AID技术援助的几点特征。



AID技术援助从1954年开始，到1978年结束为止，在25年间，单纯合算下提供了1.26亿美元。从形式上看，服务占39%为最多，接下来是邀请32%，物资18%，派遣11%的顺序。

服务是指韩国政府与美国的技术咨询公司签订服务合同，并由AID提供支援，使韩国在特定领域能够得到咨询。AID的服务援助主要在1950年代进行提供，此后大幅减少，但1967年，例外地提供了相当于490万美元的大量金额。

这是因为，为了设立现在的韩国科学技术研究院或称为KIST的韩国科学技术研究所，得到美国巴特尔研究所的服务，就用去了380万美元的巨额资金。

在邀请专家方面，应韩国政府的邀请访问韩国的专家寥寥无几，为了AID援助事业的规划和当地运营，大部分工作人员被派往美国海外援助机构的韩国办事处。

这与联合国或科伦坡计划等其他财源是为了突破韩国技术水平不能解决的技术难题，应韩国政府的邀请而聘请专家形成鲜明对比。

物资指的是引进器材，一般集中在特定的年份。例如，全体物资引进额2220万美元中占34%的760万美元，在1968年一年内被引进。这一年，在警察装备现代化方面提供了530万美元，为计划生育和妇幼保健项目在全国各保健所引进医疗器材、车辆等提供了130万美元的援助。

在向海外派遣技术人员方面，AID与其他财源相比，韩国政府承担了较多的费用负担。现在所看到的是1973年《科学技术年鉴》中的表格。与联合国机构、科伦坡计划和其他国家提供的海外派遣项目相比，AID规定往返机票费用由学员承担。在当时的情况下，这种负担是不容忽视的。

到目前为止，我们探讨了美国海外援助机构向韩国提供的技术援助的特点。下节课，我们将审查联合国和其他财源的技术援助。



10-5 UN和其他财源的技术援助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探讨了美国海外援助机构对韩国提供的技术援助的特点。这节课我们来探讨一下联合国和其他财源的技术援助。

自第二次世界大战结束后，联合国就开始关注技术援助。自1946年以来，将正规预算中的一部分作为技术援助资金开展小型活动，把这称之为“正规方案”。然而，技术援助真正开始是于1950年随着“扩大方案”或EPTA (Expanded Programme of Technical Assistance 扩大技术援助方案) 的实施而开始的。此时，作为管理这一项目的机构，设立了UN技术援助机构，即UNTAB(The United Nations Technical Assistance Board 联合国技术援助委员会)。

1958年，为了满足不断增长的发展中国家对技术援助的需求，单独设立了相对负责规模较大的项目类型的联合国特别基金。随后，人们开始认为，这两个方案，即扩大方案和特别基金都负责技术援助，因此最好将其合并，最终在1965年，联合国发展计划，即UNDP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联合国发展计划署) 诞生了。

1951年是联合国首次向韩国提供技术援助的一年，也是韩国首次获得技术援助的一年。这一年，3名韩国人被派往海外。

UNDP的事业，确切地说是其前身“扩大方案”的事业，以韩国为对象开始开展是在1952年。这一年，23名韩国人被派往海外，他们在援助支援下在经济规划、铁路建设和公共管理等多领域接受了高等教育。根据《科学技术年鉴》中的记载，1951年至1996年联合国向韩国提供的技术援助单纯合计后，有一半，即50%是通过UNDP及其前身提供的。其次是联合国儿童基金（提供了）14%（的援助）、国际原子能机构（提供了）8%、世界卫生组织（提供了）7%等的顺序。

韩国政府于1961年4月与UNDP前身之一的联合国特别基金签署了《关于提高韩国生活水平和促进经济、社会和技术发展的实际援助协定》。1963年1月，设立了UNTAB和UN特别基金首尔办事处。此办事处在1965年根据机构合并（方案），改为UNDP现场办事处。



UNDP对韩国的援助可以分为引进国家合作项目之前和之后。UNDP改变援助方式，即启动CountryProgramme（国家方案）是在1972年。在此之前，是受惠国政府申请特定项目，UNDP审批后给予支援。可以说，这是相对多地反映了UNDP意图的方式。在国家合作项目引进后，受惠国政府可以自行筛选和着手必要的项目。

让我们从引进国家合作项目之前开始看一看。1950年代，虽然有联合国的技术援助，但是寥寥无几。进入1960年之后，（联合国的技术援助）正式展开，到1971年，支援的项目集中在农林水产业和轻工业领域。

当时，由于粮食的对外依赖程度很高，因此用于粮食进口的外币支出甚至成了问题。为了解决紧迫的粮食自给问题，韩国政府和UNDP设立了有关农作物生产、土壤研究、水质管理、土地开垦等各种机构，并致力于协助这一领域的研究。

自1972年引进国家合作项目开始，根据韩国政府的经济开发五年计划，到1996年为止，该项目以五年为单位实施了五次。此后，1997年至2004年实施了第六次项目，2005年至2009年实施了第七次项目，但当时，由于大部分或所有业务费用由韩国政府承担，因此作为援助的意义不大。

事实上，在1992年至1996年实施的第五次项目中，韩国政府承担的金额也相当大。正如画面中所看到的，从第一次项目到第三次项目，即1972年至1986年，韩国政府没有承担任何金额。在第四次项目中，韩国政府承担了54万美元，但只占全部1340万美元的极少部分。然而，在第五次项目中，由韩国政府承担了900万美元，这相当于全部1390万美元的65%。

让我们简要看一下从第一次到第五次援助项目的明细。与国家合作项目之前援助集中在农林水产业不同，在第一次项目期间，即1972年至1976年的五年间，援助重点转向工业和科学技术领域。总共执行了41个项目，其中工业分到13个，科学技术分到5个。

第二次项目时期，即1977年至1981年的五年间，是技术密集型产业备受关注的时期。由于转向技术密集型产业需要熟练的人力，因此韩国政府的第三次经济开发计划非常重视人力开发项目。UNDP的第二个项目也紧跟这一进程进行。



UNDP支援了中央职业培训院、技术鉴定项目，劳动科学研究所等，除此之外还开展了技术服务培训、青少年领导人培训，制定经济计划等项目。特别是，技术鉴定项目统一了各种技术人员的资格鉴定和考试。在此期间，共实施了6个一般开发项目，5个工业项目，5个科学技术项目等共23个项目。

第三次项目时期，即1982年至1986年的五年间，援助焦点放在了三个领域。分别是国家发展政策企划能力强化项目，提高重化工业竞争力的技术能力培养项目，天然资源的开发和有效应用项目。

共实行了46个项目，在重化工业化政策的影响下，工业领域（项目）最多，被分配到17个项目。这一时期值得关注的变化是，不是由海外专家，而是由韩国办事处的韩国职员开始作为负责人开展业务。

第四次项目时期，即1987年至1991年的五年期间，重点放在建立和加强研究和发展机构的能力强化，以及振兴中小企业上。在此期间，在产业工程、医药学、渔业和矿物勘探等多种领域建立了国家研究机构。据此，科学技术领域的12个项目，以金额计算占援助金额46%的援助集中在了这些领域。值得关注的是，环境领域的项目是从那时开始。

第五次项目时期，即1992年至1996年的五年，正如我前面所说，除了韩国政府承担大量费用外，还有很大变化。

在项目执行方面，到第四个项目时期为止，主要由联合国的专门机构执行项目，但从此时起，项目执行的主体变为韩国政府，引进了国家执行体制。在项目内容方面，关乎生活质量提升的环境领域和人类开发领域开始受到重视。

到目前为止，我们分析了联合国的技术援助，接下来我们将讨论其他财源提供的技术援助。正如我在上节课中所说，韩国政府的统计和OECD的统计在1970年代后期以后，主要在日本和德国的技术援助金额方面有很大差异。在这里，我想根据韩国政府的《科学技术年鉴》聊一聊，提前说明一下日本和德国的援助可能被低估了。



首先，科伦坡计划是一个面向亚太地区国家的政府间机构，当受惠国提出要求时，由受惠国和援助提供国进行直接交涉的双边合作形式的技术援助。韩国政府于1962年成为科伦坡计划的成员国，并于当年向海外派遣了25名韩国学员。

在科伦坡计划成员国中，向韩国提供技术援助的国家有美国、日本、英国、澳大利亚、新西兰和加拿大等6国。根据《科学技术年鉴》的记载，截至1980年，所有已完成的项目总价值为5.8亿美元，正如画面中所看到的，其中95%来自美国。从韩国派遣的学员人数（分布情况）来看，美国为4050人，日本为2083人，分别占全体7767人的52%和27%。

科伦坡计划下的技术援助在引进物资方面的比率很高。在对1962年至1991年的援助引进额进行单纯合计时，物资引进占53%、派遣占32%、邀请占15%，服务所占比例则微乎其微。

除了美国海外援助机构、联合国和科伦坡计划外，（对韩国）提供技术援助的国家还有德国和法国等。其中，特别是德国为建立各种研究所和职业培训学院提供了大量器材，并为其运营提供了相关服务，为建立工业振兴基础作出了重大贡献。

德国的技术援助以1967年生效的韩德技术合作协定为基础，1972年至1980年每年举行韩德经济工作会议，以确定每年的技术援助规模和援助对象。

另一方面，与法国在1965年签订了《韩国政府与法国政府间的文化和技术合作相关协定》之后，通过每两年举行一次委员会，主要以派遣进修生的形式提供技术援助。

到目前为止，我们探讨了联合国和其他财源提供技术援助的特点。下节课，我将总结一下有关引进技术援助的讲义内容。



10-6 讲义概要整理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讨论了联合国和其他财源的技术援助特点。这节课我们简要整理一下有关技术援助引进的讲义内容。

首先是技术援助的概念。技术援助是指旨在增加人力资本和提高经济整体的技术水平的援助。主要包括以奖学生或实习生的形式提供的学习支援，提供专家和教师等援助，以及研究发展中国家出现的问题等。他们可以分别称为派遣、邀请和服务。

技术援助的正式提出是在1949年，这一年美国总统杜鲁门在就职演说中强调要向发展中国家提供技术援助，于是联合国大会决定启动技术援助扩张方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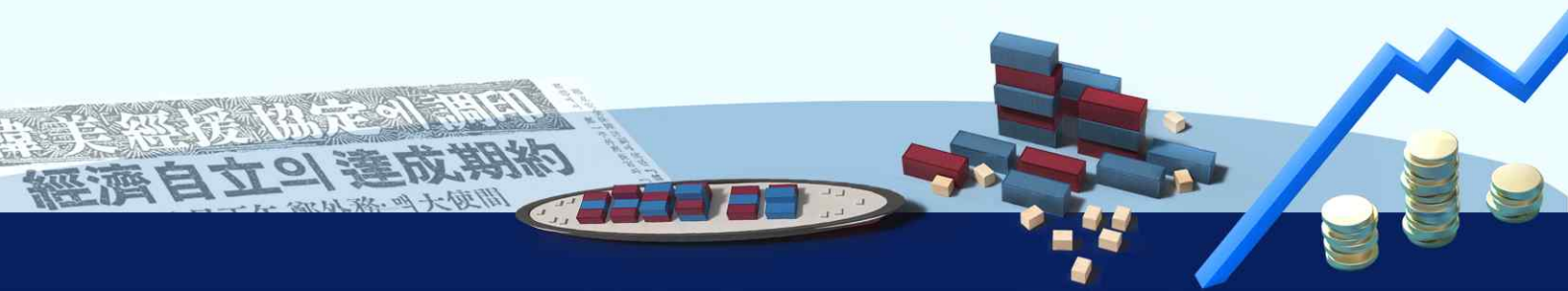
利用OECD的统计对技术援助的国际趋势进行整理的话可以知道，在全球金融危机之前，技术援助在ODA中一直保持在20%的水平上，并随ODA一起增加。

以2020年的美元价格计算的话，2006年的援助额是1960年的5倍。然而，自2007年以后，技术援助在ODA中的比例开始下降，到2020年时已降至10%。这一现象可能有很多原因，其中也包括对技术援助所引发的人力外流问题的舆论批判。

技术援助的主要提供国是美国、德国、法国和日本等。以2020年的美元价格为标准对1966年至2020年间的援助总额进行统计，美国在技术援助总额中的占比为20%，德国为16%，法国为14%，日本为8%。

此比率在不同时期有所差异，美国在1960年代后期提供了全体技术援助的33%，但在2010年代只提供了5%。相反，德国在1960年代后期只提供了8%，而在2010年代，提供了28%。

技术援助按各受惠大陆来看，到1990年代为止，向非洲大陆国家提供的援助最多。自2000年代开始，非洲和亚洲的水平相当。ODA总额中，到1970年代前期为止，提供给亚洲国家的援助金额大约是非洲国家的两倍，自1970年代末开始，这一比例大致相同。与此相比，可以了解到技术援助长期集中在非洲大陆。



韩国首次引进技术援助是在1951年，金额在1960年代开始增加，1980年代以后开始减少。韩国政府的统计将技术援助分为派遣、邀请、服务、物资四种形式，派遣最早于1951年开始，邀请始于1953年，服务和物资始于1956年。1950年代和60年代是服务所占比例最高，70年代是物资，1980年代是派遣的比例最高。

技术援助的财源大致分为美国海外援助机构、联合国、科伦坡计划和其他4类。在1950年代后期和60年代，美国海外援助机构（在援助中所占）的比例最高，1970年代和1980年代联合国的比例最高。

让我们从各财源的明细中再仔细看一下。美国海外援助机构于1954年派遣了10名韩国人为起始，至1978年结束。（对援助金额进行）单纯合计（的结果是美国共）提供了1.26亿美元的援助，其中服务占39%，邀请占32%，物资占18%，派遣占11%的比率。

然而邀请外国人主要是向韩国办事处派遣职员，因此与韩国政府直接邀请所需要的专家有所不同。把韩国人派遣到海外时，与其他财源相比，（韩国需要）承担的培训生费用也比较高。

美国海外援助机构中，在1950年代活动的FOA和ICA，从1956会计年度开始提供了名为“技术合作”的援助，虽然这只是技术援助的一部分，但可以了解到其所支援的各个具体领域的金额。从截至1960年6月底的援助累积金额来看，教育领域占比27.5%为最多，其次是矿工业、农业和自然资源以及公共行政的顺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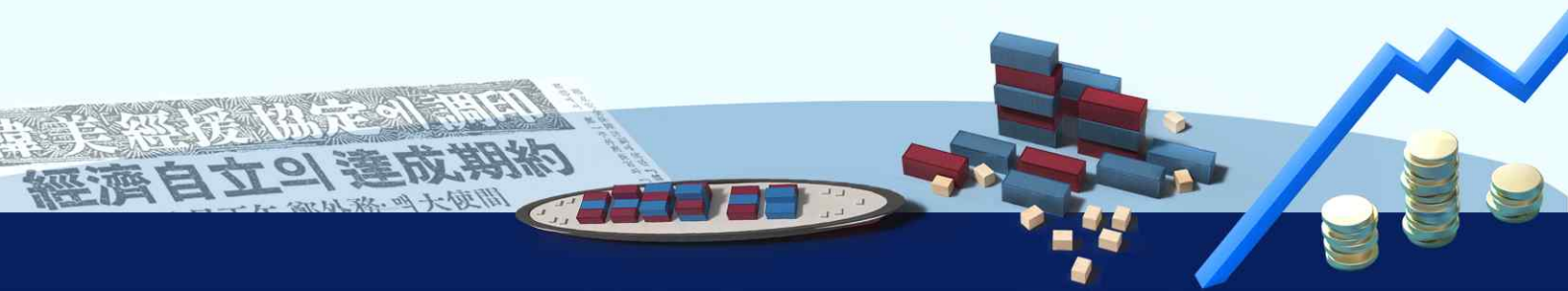
最后，让我们看一看其他财源的技术援助。1951年，最初向韩国提供技术援助的是联合国。其中，UNDP负责联合国技术援助的一半。UNDP自1972年开始，依据韩国经济开发五年计划，以五年为单位开展国家合作项目。

最初由UNDP承担全部费用，从第4次项目开始韩国政府也承担费用。UNDP的国家合作项目对应各时期5年计划的重点项目把焦点分别放在了工业、人力开发项目、重化学产业、科学技术、环境以及人力开发领域。



科伦坡计划是一种相互合作的机构，韩国于1962年成为该机构会员。从那时起，韩国开始从成员国那里获得技术援助，截至1980年已完成的项目为基准，95%的援助资金来自美国。

到目前为止，我们已经总结了关于引入技术援助的课程内容，以此结束第10周的讲义。下节课，我们来看一看韩国作为援助提供国向海外提供的援助。谢谢大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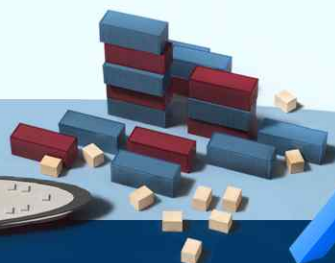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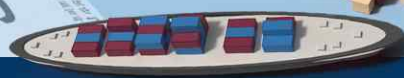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韓美經援協定에 調印
經濟自立의 達成期約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10분

기술원조를 본격화한 두 사건이 1949년에 발생했다. 그 중 하나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재선 취임 연설에서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조한 것이다. 이로 부터 비롯된 기술원조 프로그램을 흔히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가? (힌트: 해당 내용이 연설의 몇 번째 항목이었는가와 관련이 있다)

정답 포인트 포(Point Four)

해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재선 취임 연설에서 네 가지를 강조했는데 그 중 네 번째가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지원이었다. 그래서 그후 시작된 기술원조 프로그램을 '포인트 포' 프로그램이라고 흔히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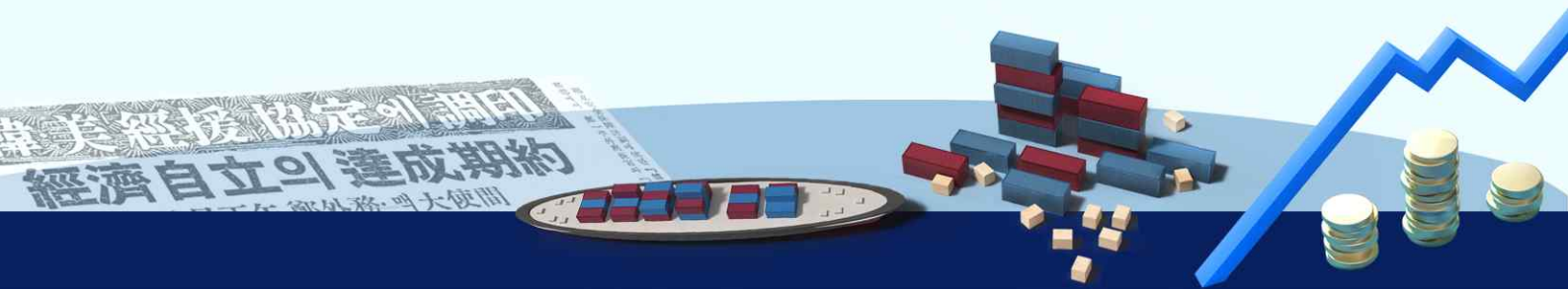
02

10분

한국에 제공된 기술원조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싣고 있으며 1960년대부터 발간된 연간물은?

정답 과학기술연감

해설 과학기술연감은 1964년부터 발간되었으며 기술원조 도입실적을 형태별, 자원별, 분야별 등으로 구분해 수록했다.



03 한국에 제공된 기술원조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원조는 어떤 형태였는가?

5분

- ① 파견
- ② 초청
- ③ 용역
- ④ 물자

정답 ①

해설 '파견'이란 장학생 또는 연수생으로서 한국인을 해외로 보낸 것을 말한다. 1951년 UN의 원조로 한국인 3명이 해외 파견되었다. 초청은 1953년, 용역과 물자는 1956년에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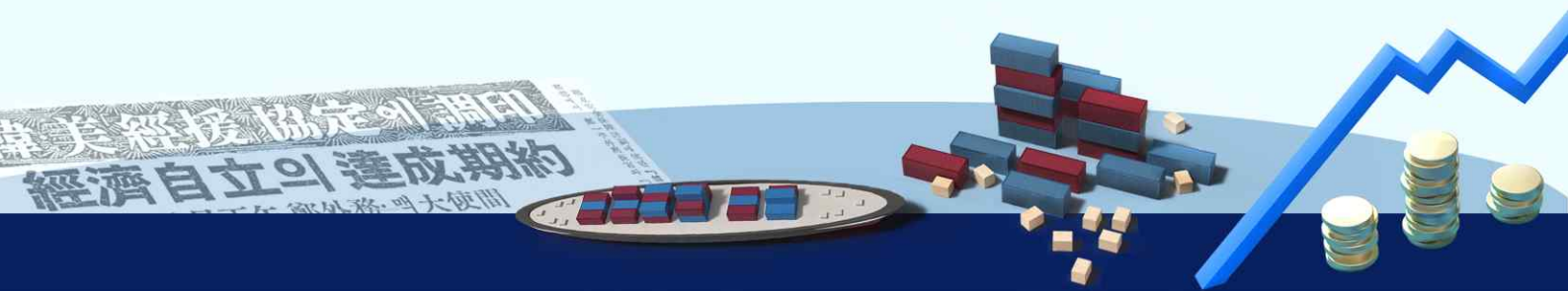
04 1960년대 한국에 제공된 기술원조를 재원별로 봤을 때 가장 비율이 높았던 것은?

5분

- ① 미국 해외원조 기구
- ② UN
- ③ 콜롬보 플랜
- ④ 서독

정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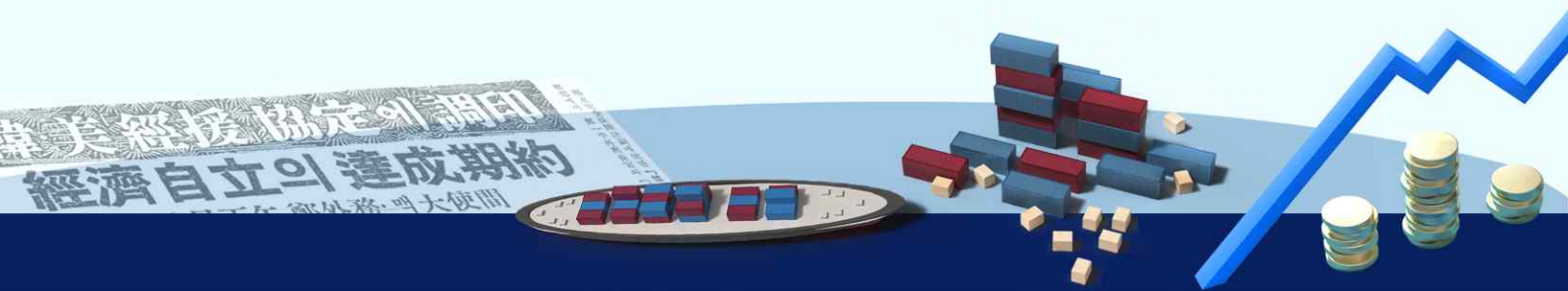
해설 1960년대는 미국 해외원조 기구, 1970년대와 1980년대는 UN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05 UNDP가 1972년부터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맞추어 5년단위로 시행한 사업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10분

정답 국가협력사업(CP: Country Programme)

해설 국가협력사업이 도입되기 전에는 한국 정부가 특정 사업을 신청하면 UNDP에서 이를 심사하여 지원하였다. 반면, 국가협력사업이 도입된 후에는 필요한 사업을 한국정부가 스스로 선별하고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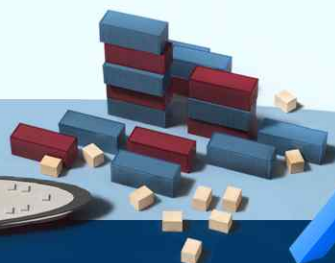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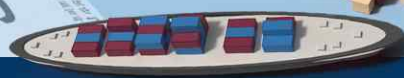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韓美經援協定에調印
經濟自立의達成期約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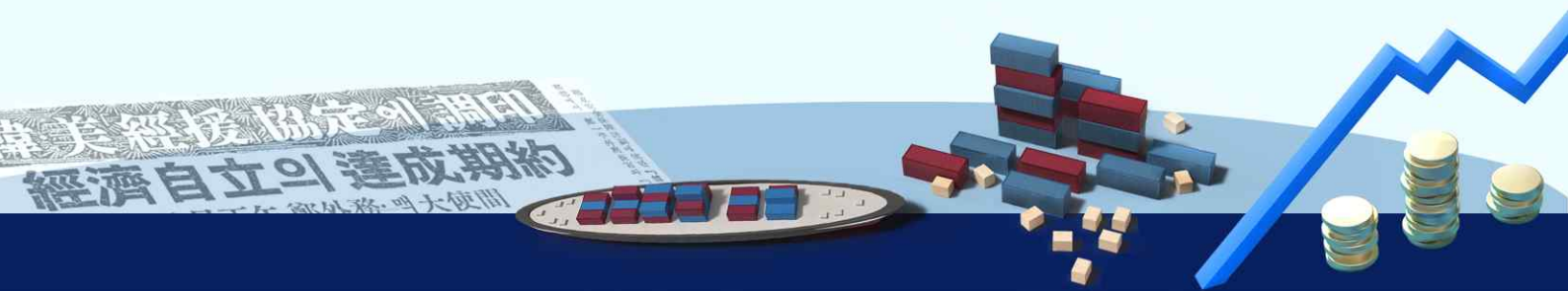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 형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됩니다.

주제 기술원조에 대한 비판 논점을 소개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60분)

참고 기술원조에 대한 주요 비판 논점으로는 기술과 지식이 쉽게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 두뇌 유출 문제, 전문가 파견의 비용 문제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韓美經援協定에調印
經濟自立의達成期約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OECD DAC(2006),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5, Paris: OECD.

Chapter 5 Technical Co-operation을 읽어볼 것

웹사이트

-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 과학기술연감 PDF 파일을 제공

<https://www.k2base.re.kr/k2bbs/pds05ANDpds26/list.do>

